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23호

http://www.snua.or.kr

·동창회 활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으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庭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703-0755

선후배 하나되어 재도약의 불씨 지폈다



관악춘추

사람들은 새해가 밝아 오면 의례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다짐을 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지난년의 반성과 함께, 새해를 설계하고 새 출발을 굳게 약속한다. 올해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정초부터 신년인사했다, 신년교례회를, 신년하례회를 하여 1월 한 달을 바쁘게 보냈다. 그리고는 이제 보통 때처럼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금년 음유년은 여느 해와 아주 다른 해임을 알아야 한다. 국권을 빼앗긴 지 1백년이 되는 해이고, 통치에 국권을 회복한 광복의 기쁨을 맛본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음유년에 서울대인의 지혜가 필요하다

원래의 관점에서 해방된 지 60여 년간 우리는 최후의 대역전 역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보릿고개의 가난에서 벗어나 산업화, 근대화와의 성과를 이룩하고 이어서 민주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경제면에서 세계 12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림픽, 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로 성장했다. 식민지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올라서게 됐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대와 서울대인은 엘리트로서 지식과 열정을 다 쏟아 부었다. 각 계 각층에 포진해 있는 서울대인이 국민과 함께 피와 땀을 흘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에

만족하고 태연하게 있을 수 없다. 닭띠해인 음유년을 맞은 우리 나라는 모두가 알다시피 불확실성의 여왕선상에 방치되어 있다. 정치적 이념의 갈등, 경제침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 등 사회 전반에 스며든 혼란과 무질서는 우리의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11일 서울대총동창회가 마련한 신년교례회의 차리는 예년처럼 막단과 신년 인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참석한 정세, 관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각계의 인사들은 한국의 장래에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져야 하는 엘리트들이다.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한신했던 엘리트로서 나라의 재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열정을 뜨겁게 태워야 할 서울대인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재도약에 솔선하여 나서야 한다.

林光洙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다행히 文·武·勇·信·仁의 五德을 상징하는 것처럼 서울대인은 오직 무한하여 음유년을 국력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난날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대인으로서 앞으로도 국력 재도약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리더십을 심분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동문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기원한다.

(均)



乙酉年 신년교례회 좌로부터 孫一根, 趙 淳, 鄭元植, 權壽赫, 金在淳, 林光洙, 鄭雲集, 金炯片, 李浩雄, 金學元, 洪性大, 李鎮仁, 金廣波, 李惠薰, 李東一 등



南田 元仲植 설날 휘호

해설: 명심보감 勸學篇에 나오는 구절.
“學은 如登天而無術하고 學而智遠이면 如披雲霧而觀青天하고 登高山而望四海나라”
사람이 배움지 않으면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우고 지혜를 원대하게 갖는 것은 삼시로운 구룡을 해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 사해(四海)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炯均, 南仲九, 金鍊洞,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幸, 朴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熙, 辛京淑, 姜大錫, 李元愛, 朴聖熙, 朴勝俊, 金鎮國, 편집장 安典燮, 편집부 기자 朴宰亨, 裴智媛, 金南柱, 曺昌武, 金千鶴



“단합·봉사정신으로 선구자 역할 담당하자”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許 應시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작년 한 해 모교와 동창회는 오히려 발전을 위한 변화와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각 분야의 많은 모교 교수들께서 열악한 환경을 딛고 국내외 학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연구업적을 거머쥔 것, 모래알 같아선 동문들이 ‘서울대 패권’ ‘국립대 공동학위제’ ‘세계대학 동수론’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논란 속에서 모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후를 회보와 홈페이지에 보내주시고 전년도 두 배를 웃도는 회비를 납부해주신 등 관록한 만한 단합과 결집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각계서 5백여명 참석

아름다운 ‘남여는 판대하고 자 산에겐 엄격한 복록 속에서 그들인 누러는 우월적 지위를 줌다 나 누고 때우는 Noblesse Oblige의 삶을 살권하고 사업이나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더욱더 공헌하면서 금년 한 해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인이 되도록 다짐이 노력을 경주하자’고 피력했다.

모교 鄭雲龍총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모교 전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께서 서울대가 패자를 것이 아니라 패자를 일류대학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여연하시기 위해 동문서약하며 모교 내에선 세계 각국이 담당하 내세워 필요한 변화들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갔다”고 말하고 “최근 세계 각 곳에서 국제적으로 대학들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모교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유수 대학들과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있

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교육의 질 개선과 연구역량 강화에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 鄭元植교문,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辛東一·金壽澈·洪性大 부회장, 모교 權錫林전임총장, 鄭雲龍재직장, 李錫仁부총장, 趙淳堃예교수, 金學元·金輝軒·李浩雄·李惠濤국회의원이 乙酉年 새 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시무패를 전했다.

한편에 앞서 모교 성악과 朴國宰(90년 卞大卒)교수가 뛰어난 기량과 무대 매너로 ‘O Sole Mio’를 축하로 불렀으며,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차세대 성악자로서 각종 콩쿨대회에서 입상한 모교 재학생 이명숙(올해 4년) 양과 함께 ‘죽백의 노래’를 불렀다.

金在淳명예회장은 건배 제의를 통해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이리크 전쟁 뿐만 아니라 연말에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재해이라는 엄청난 재해로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고 국내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악화됐으나 이번 해면 우리 사회가 충성을 잡고 열심히 땀땀한 사실을

유공 동문 16명 시상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울대인의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잃지 않고 조국과 모교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 나가자”며 다짐을 “위해서”를 헌하게 외쳤다.

이이 모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朴泰植(02년 卞大卒)동문과 이명

주 양이 Placido Domingo의 인기 곡인 ‘A love until the end of time’을 불렀으며,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Quartet 단원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전임 단과대학(원)동창회 및 직능단체·지방지부 회장인 成白鎔(공대)·李信우(미대)·李相



林光洙회장이 李禮權동문(左)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鄭雲龍총장이 洪泰浩동문(右)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赫(백대)·辛東一(사대)·李佑宰(수의대)·李禮權(약대)·丁榮植(화대원)·趙炳祐(AIP)·金哲賢(ACAD)·文憲一(AIC)·金奎台(AFB)·韓基永(AMFR)·曹奉賢(관악대학원)·洪宗濤(ROTC)·李裕恒(마산지부)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2004년 본회에 특기장학금 1억원을 출연한 李相範(57년 法大卒)변호사이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한편 중에는 국립극장 어린이창극단장, 국악무지관단장 ‘타루’에서 활약중인 정성호(03년 卞大卒)동문이 사소리 삼정사·죽

신년교례회 참석 동문(無順)

본회: 尹永基·白文基·姜信浩·鄭元植교문,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韓基永·尹勳燮·劉錫海·徐廷和·李錫淵·朴熙白·高炳佑·李世中·張翼龍·李相赫·鄭宗澤·辛東一·朴廣賢·金壽澈·金宗鎔·李金器·孔大植·安秉勳·孫京植·李相赫·洪性大·李炯均·辛敏雄·朴泳俊·鄭廷始·鄭八連부회장, 朴英俊감사, 許 應시무총장 등.

제대법인 관악회: 明泰鉉·鄭植圭·鄭仁性·朴南均·金壽澈교문 등.

본회: 朴世熙·南仲九·金錫綱·丘月熾·李成俊·金仁圭·徐玉植·朴禮權노선위원 등.

상임이사: 金敏子(간호대)·南正植(공대)·金鳳九(미대)·鄭英彩(수의대)·梁源植(지대)·申碩鈞(보대원)·金國淵(AMP)·李秉俊(ACAD)·朴英敏(ChCN)·吳元鎔(SGS)·金方堃(HPM)·朴秉南(AMFR)회장 등.

지부 및 학과동창회: 金鍾通(김포지부)·金憲友(부천지부)·吳應燾(대전·충남지부)·俞東燾(수원지부)·金華寧(서대·여동문회)·李相權(진기동문회)·金永煥(수학과동창회)회장 등.

모교: 鄭雲龍총장, 權錫赫·李賢宰·許南均전임총장, 李錫仁부총장, 趙昌九교무처장, 李美娜와서장, 余南鎔교무부처장, 朱尤進학술부처장, 鄭振錫연구부처장, 許南鎔중앙도서관장, 金錫德국제대학원장, 洪國善산학협력재단 단장, 李錫誠·趙淳·朴錫範예교수, 韓萬熙총교수, 吳正正지대대학장, 朴誠毅간호대학장, 韓仁九공대 학장, 成廣賢법대 학장, 李正一사대 학장, 黃仁京원예대 학장, 李文美수의대 학장, 鄭錫澤지대 학장, 梁敏收간대학원장, 韓政範관악대학원장, 成相範병원장 등.

관계 및 정계: 高建 前국무총리, 吳 明哲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尹錫鎔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李海龍국립한글박물관 이사장, 許南鎔국립중앙도서관

차관보, 具寬鎔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韓和甫새천년민주당 대표, 李敬仁·高錫吉·金學元·金輝軒·李錫榮·辛基南·崔奎植·朴 振·蔡秀鐵·李浩雄·李惠濤·柳基洪국회의원, 崔鍾豪 前건설교통부 장관, 吳有熊·鄭明우 부 차관, 金詩秀·朴鍾珍·許內大 前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梁麗閣 前국회의장 직무대행, 韓慶福국세무청경영연구회 회장, 宋國植한국지역개발연구원 이사장, 金錫鎔무법인 한나라당 고문변호사, 金錫綱 前인제고교 교장, 李人淳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 金鍾源무법인 잡·서울을 이사장, 李海英한국금융지부 회장, 朴贊勳포항대총장, 池 鍾仁삼파티스 상임고문, 魯仁煥달라비안보호운동본부 국제조직위원장, 韓武源한나라당인원회 회장, 李茂鎔대한산업 회장, 權五學안광동부 부사장, 李鍾範한국기술총회 회장, 張權宰 前인제대 교수, 姜奉衡경동중문대 학장, 李鍾淵부경문고려재단 이사장, 朴正浩 前세인트미리온재단 합 총재, 朴英익건산업 회장, 李泰南동아TV 회장, 李珍鎔을지병원장, 河權鎔을지대병원장, 尹 鍾대구경북개발연구원장, 朴 容(수원대)세무법인 이사장, 李年憲 ANTV 대표, 文惠相종합금융회 회장, 尹正哲친의대 강병원 원장, 鄭東俊대한민국사법관지회회장, 李鍾鎔한국농업경영연구원합회 농업경영연구원 회장, 李鍾鎔농업유망사업, 玄禮聖 前동아지대야전부, 李鍾範한국수력원자력 이사장, 姜文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韓錫鎔주거예측대 교수, 梁承禹안진회계법인 대표, 趙鍾根 명지대 교수, 徐明鎔삼영대 총장, 金錫煥한국광고협회 상근 부회장, 李錫利 前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朴鍾範KBS 전문아나운서, 呂賢結KAIST 감사, 吳東熙간삼파티스 부사장 등.

(지면 관계로 참석하신 모든 동문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賢宰전임총장



趙 淳堯교수



鄭元植교문



李惠薰국회의원



金祥源변호사

봉사가 노릇은 대목'을 참석자들의 흥겨운 추임새에 맞춰 멋들어지게 선사하며 축하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단과대학별로 더욱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선무배간 친목을 나누는 가운데 각계 동문들을 대표해 분회 鄭元植교문, 모교 李賢宰전임총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趙 淳堯교수,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金祥源변호사, 국민연금관리공단 張錫準이사장과 여성동문을 대표해 李惠薰국회의원 등이 새해 덕담을 했다.

축하공연에 한마음 박수

모교 李賢宰전임총장은 "林光沈회장과 鄭惠業총장의 신년식 중 모교의 동창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모교의 동창회가 뜻과 힘을 합쳐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들을 실천해나간다면 세계 속에서 모교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趙 淳堯교수는 "작년에 동창회에서 개최한 등산대회를 비롯해 첫 동문 바둑대회가 직접 참가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에 새삼 놀랐고, 모교에서도 교직원 처우 개선, 신입생 모집 방법의 다양화,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 강화 등 많은 획기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鄭元植교문은 "연초에 늘 암송



모교 李賢宰교수와 이명주장이 듀엣곡을 불렀다.



정경화동문이 흥겨운 추임새에 맞춰 관소리 심청가를 불렀다.

하는 시 한 구절이 있는데, 지난 1929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타고르의 송시로서, 타고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며 한국이 크게 발전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며 "이제부터 코리아의 등불, 이미 등방의 밝을 넘어서 세계를 밝히고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동문 모두가 현재의 위치에 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金祥源변호사는 "1956년 농대를 졸업한 후 법조계에서 투신하며 현재 변호사인 두 아들과 함께 법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둘째 동문'이라며 "올해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현재 일하여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를 바라며, 개인주의가 아닌 주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여 서울대인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대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張錫準이사는 "국민



張錫準이사장

연금 때문에 탈도 많고 반도 많았던 작년 한 해였다"며 "한해 마무리하고 있는 연금에 1년 국가 예산

과 맞먹는 1백30조나 돼 20~30년 후에는 우리 나라 GDP의 40% 수준에 이르게 되나 40~50년 후에는 급격히 고갈되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이

서울대인의 위상 강조

제자리에 들어서고, 국민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전통주 제조업체(배상원酒家(회장 張衡淵))에서 새로 출시한 차림비 세트를 받았다.

(表)

알림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조감도 및 입면계획 현상공모

모교 후배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충하고 21세기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연 1회 동창회관 사리에 역사상 최초로 장학빌딩을 건립 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모교가 세계 속의 명문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30만 서울대인의 이상과 열원을 담은 장학빌딩의 조감도 및 입면계획안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모내용 : 입면관련 아이디어로 명확한 컨셉에 전개가 표현되어야 하며 표현방법 및 제출물 제한이 없음.

1. 응모기간 : 2005년 3월 31일까지
2. 응시지역 : 전 동문 및 서울대 재학생과 국내외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 및 이에 관심 있는 분
3. 건축규모 : 부지면적-1,713.1㎡
건축면적-899.32㎡
연 면 적-20,537.25㎡
건 배 른-52.5%
용 적 른-798.43%
규 모-지상 18층, 지하 5층

4. 제출내용 : *부지도, 사진, 시뮬레이션(컴퓨터 그래픽) 등 각종 의뢰에 대한 자료
*사식 : 제한 없음.

5.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우) 121-812
서울대 동창회 장학빌딩 건립위원회 (02-702-2233)

6. 시상일표 : 2005. 4. .

7. 시상내용 : *당선작-최우수상 (1점, 1000만원)
*우수작-우 수 상 (1점, 500만원)
(지적도 등 상세한 사항은 동창회 사무실로 문의 바람)

※ 당선작을 초대할 학교로 하의 규모,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의 아이디어는 본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위원회

동문 화가 지상 전시회



林明玉作

'A Sacred Place'
optic glass, 17x15x15cm, 2001.

<작가약력>

- ▲86년 모교 미래 조소과 졸업
- ▲88~98년 서울조각회전, 머루조각회전
- ▲93~94년 가인선 9회
- ▲94년 국화미술당 초대전
- ▲96년 춘천MBC 초대전
- ▲97년 가인선 10회
- ▲98년 한국현대미술 50인회
- ▲99년 여름조각회 시흥7 회전
- ▲현재 수원대 교수

●느리나무광장

내가 취재한 '박사' 가운데 영국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경이로운 석학이다. 그가 머리 속으로 장엄한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러한 '사고심형'을 그는 거듭한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컴퓨터 언어접성기를 조종해서 나의 질문에 짧막하지만 명쾌하게 답변했다.

알마 뒤 나는 서울대학교가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교수로 새로 영입한 30대의 차세대박사를 인타부한 적이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주론을 전공한 그는 지도교수와 함께 슈퍼컴퓨터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초기우주로부터 중력에 의해 은하계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재현하고 우주의 크기를 산출해 한국 우주물리학의 자랑거리가 됐다. 그는 탁월한 미국 박사이다.

요즘 '미국 박사'에 관한 분석자료가 나와서 우리를 성찰하게 만든다.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뉴스 스누너우가 한 시기간지와 공동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미국 바깥에 있는 대학만 놓고 보면 미국 박사 취득자수 1위이다.

한국 땅에 미국 박사가 풍미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에서 교수를 임용할 때도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를 따로 서열

서울대의 '천연기념물'

安炳燾
경원대 초빙교수
본보 논설위원



화려해 점수를 향상하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대학 박사에게 대동한 비중을 두고 싶지만 '서열규제'으로 발미암아 '미국 박사 우선'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본다. 미국 박사를 열망하는 풍토는 미국대학의 연구 환경이 한국대학 보다 낫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수가 되려면 미국 박사가 필수라는 한국적 병리현상이 고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특히 사회과학계열에 미국 박사가 더 심하게 편중된 현상을 염려한다.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기사를 보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의 몇 안 되는 국내 박사를 '천연기념물'이라고 빈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공계의 천연기념물이라면 체세포 복제 유래 증기세포 배양연구로 세계적으로 떠오른 黃熙慶박사이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토종학자이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는 실력 있는 토종박사를 배출하고 미국 외의 여러 나라 박사를 균형 있게 흡수하는 정책을 세울 때이다.

동문칼럼

50위권에 드는 대학이 되려면

얼마 전 신문에 서울대학교가 미국에서 배출하는 박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을 공급하는 학부를 가진 대학교로 소개됐다. 한라포니아주의 버클리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인 것을 보면 한편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많은 학부졸업생이 미국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학부학생은 이렇게 우수하다고 자부한다.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와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울대 학부학생들의 자랑을 했더니 그 친구로부터 쏘는 대답을 들었다. "서울대의 부실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출신이 우수한 것은 학생들의 자질 때문이지 교수진이나 서울대학교가 교육을 잘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대답이었다.

나 저자 자신은 생각이 틀리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서울대학교의 이공계통은 온통 논문의 인용도수를 집계하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수록된 논문수에 교수들의 업적 평가를 하는 큰 기준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발표 논문수를 늘리려는 노력 때문에 연구에만 몰두하고 우리의 소중한 학부학생의 교육에는 매우 소홀한 점이 눈에 띈다. 논문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평균적으로 볼 때 논문수가 많은 교수는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에서 편협한業績이고 정량적인 잣대를 각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필자가 1972년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30만원을 받은 바 있다. 그 당시 연구비 지급의 조건으로서 "최종보고서는 30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아마 그 당시 생각으로는 양이 중요하지 질은 2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했나보다. 그러나 80년대가 되면서 "기초과학연구소지원사업"이란 명칭의 문교부(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연구비가 각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에 배당된 적이 있다. 그 당시의 기준은 두 명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이 추천한 학자

표한 것만을 논문으로 인정하지 교내학술지(예: 연구논총)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많은 대학에서 이런 잣대가 좋지 않다고 항의를 해왔다. 그들은 우리 대학의 논총이야말로 세계에서 모두가 인정할 일류학술지라는 것이 내세우는 이유였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사업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학논총은 외부에 판매되지 않으며 공정한 외부 심사위원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다.

그러부터 논문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술지에 국한된다는 전통이 생겼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SCI 학술지 논문이 중요한 자격요건의 핵심을 차지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량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어야 몇 편 이상이어야만 자격이 있다는 식의 발상은 그 옛날 문교부 지침인 몇 배 이상이라는 군으로 우개를 받는 발상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형식상의 규장을 얹어야 한다. 과거 몇 년 동안 단 한편의 논문이 없었다고 그 교수의 장래성과 과거의 업적을 보아 그 해당 학과에서 재량껏 결정토록 위임해야 한다. 좋은 논문을 쓰는 교수만이 아니라 학부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 역시 그 응분의 대우를 받는 풍

토가 생가야 한다. 교수 채용 역시 해당 학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우수한 교수가 나오길 때는 규정에 얽매지 말고 우척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화시대에는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나서듯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고 기본 상응한 학부교육에 충실하며 대학이 유연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50위권에 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심 같은 기업이 세계의 일류기업이 된 것은 유연한 경영과 기부에 충실한 결과로 생각되며 서울대 역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金濟堧
(58년 文理大卒)
고려문화진흥회장



좌로부터 朴英奎·辛東一·孫一振·孔大植·尹勳煥·林光洙·洪性大·許聖東

회관 건립기금 모금키로

건립기금 모금에 전 동문 참여 유도

본회 장학비담전립위원회(위원장 林光洙)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신문로 한 음식점에서 林光洙위원장, 辛東一수석부위원장, 孫一振·孔大植부위원장, 尹勳煥위원,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당일사, 문화 朴英奎당일사, 許聖東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林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許聖東부총장이 장학비담전립기금 모금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동문 전원의 자발적인 참여, 장학기금 모금으로 장학비담전립 재원 충당, 장학기금 출연자에 한해 본인 명의의 장학회를 운영하여 기금의 원활 관리 수단을 이상으로 모금 자화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비동문 참여 등을

함의해 전립기금 모금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또 회관 건립위원회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회관건립에 크게 기여하는 동문을 특별하여저자로 구분 우대하기로 했으며, 동문 유망인 및 유망인들의 다년소비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골프대회 등을 통해 모금키로 했다. 출연자에게는 기금 액수에 따라 흉상, 안분 부조, 핸드 크리닝, 동문 미술작품, 명세록 등을 건물 내에 배치하고 동문들의 공로등을 일괄 예정이다.

건립기금 모금의 목표 액수는 장학비담전립소요 예산 3백억원에서 총동원액, 보유기금과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의 출연 금액을 차감한 1백40억~1백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일월 3월 18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제4대 제11호(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선)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시: 2005년 3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 ◆ 장소: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라운클럽
- ◆ 내 용: ① 제7회 '서울대총동창회 30년대' 시상
② 2004년도 경산 및 2005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원회 146차-관악회 92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산업 동향방향 인력

수의과대학 鄭英彩회장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장)

최근 수의과대학 동창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鄭英彩(60년 鄭英大卒·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장)동문은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일”이라며 올해 동창회 역점사업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취임 소감은.

“근래 들어 수의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黃驥驤수수의 영향과 애원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데, 수의대 입학 정수도 모교 단과대학 중 2, 3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모교가 세계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동창회가 늘어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수의대동창회 장황재단 이사장으로



니다.”

-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소개를.

“가족친밀법 시행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농림부 신하 특수법인으로 직원은 2백40명 정도 되고 전국 8개 도본부와 38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올해 1백30명을 충원할 정도로 방역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기 내 장학기금 5억 조성 목표”

계셨는데.

“지금도 계속 맡고 있어요. 올해부터 동창회장으로 임하기 때문에 곧 다른 본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현재 3억 원 정도 기금이 모아져 매년 약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혜자가 줄고 있는데, 회장으로 있는 동안 장학기금 5억원을 모을 계획입니다.”

-동창회 활동이 침체돼 있지 않은지.

“매년 10월 31일 핼크데이에 경 경지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동문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요즘 일원진 개원직업을 하면서 역대 임원, 기별 대표들에게 매 일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기별대표 제제간 최신해 세운다면 동문들이 이끌어 내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수의학이 과거처럼 좁은 학문이 아니라 리는 사실을 후배 재학생들에게 알려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동문 스스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수의학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원대한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鄭동문은 수의학과 졸업 후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했다. 이후 중앙대 농과대학, 부총장을 역임한 후 현재 종신 명예교수로 매우 헌신 강의를 나가고 있다. 그밖에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농수산 TV 자문위원장, 한림원 종신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부인 羅銀姬(61년 美大卒)와 사와 딸 鄭銀姬(85년 家政大卒)씨가 동문이다.

AMFR 朴秉南회장

(고궁 대표)

식품 및 외식산업포전 최고경영자과정(AMFR) 동창회는 지난해 12월 6일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고궁 朴秉南(4기 AMFR)대표를 선임했다. 이에 회장을 맡는 앞으로의 과업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과 앞으로 하고 한 말씀.

“먼저 유능한 선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우리 6백여 동문들이 우리 나라 식품·외식산업의 주역으로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1년 동안의 짧은 임기이지만 동문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무수한 신입생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창회 활동과 앞으로 협심화 방안은.

“현재登山, 골프, 바둑 등 친교 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원우 방문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반치미 및 해의 연수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창회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이런 동문의 활동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고 격려하여 기쁨 살리고, 동창회원으로서 더욱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각종 교육 커리큘럼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외식 산업이 어려울 텐데 동문들 협심은?

“지금까지 공무원 파동과 조류독감, 만

“회원들 氣 살려 자부심 심어주고교과”

두파동과 경제악화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 식품·외식산업은 엄청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올해 또한 어두운 경제전망들로 시련의 고공을 걷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술대학 金鳳九회장

(서울미술협회 회장)

-기금마련이 당면 과제가 아닌지.

“모교지원과 친목행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행사들을 진행할 때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문들이 단합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금마련이 수월하지 않을까요? 기금을 내 주신 분들에게는 꼭 그에 합당한 사례가 뒤따를 것입니다.”

-동문 은인일전에 대해 평가해.

“지난 2001년 2백50여 동문이 참가해 시작된 은인일전 전시회가 지난해 7월, 2회를 맞게 됐는데 타 동창회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홍보효과(회회장)동문은 “전임 회장이 닦아 놓은 기반 아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갔다”고 밝혔다.

“특색 있는 동문 전시회와 동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스케치대회를 열겠습니다.”

지난 12월 미술대학 동창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金鳳九(63년 美大卒·서울미술협회회장)동문은 “전임 회장이 닦아 놓은 기반 아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갔다”고 밝혔다.

“동문 가족 스케치대회 개최하겠다”

-회장직이 부담되는 지리인데.

“전임 회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내가 할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게 사립입니다. 다만, 동창회 조직과 유사한 서울미술협회장을 맡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동창회에 잘 접목시킨다면 활성에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있다면.

“우리 동창회의 경우 전시회와 동문친목의 장이 될 수 있을 텐데, 단순한 동문 전시회에서 벗어나 주제가 있는 미술전을 개최해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제전 등 개인이 하기 힘든 전시회를 마련함으로써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동문 가족 스케치대회를 통해 선·후배간의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울대 미술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동창회에 바라는 점.

“동창회보다는 문화원을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신년모임에서도 그런 것지만 원지 총동창회에서 문화·예술계 동문들을 확대하는 인상을 받았습니. 문화원을 신설한다면 미대뿐 아니라 연애와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참여도 증진되고 내용도 풍성해지리라 봅니다.”

金동문은 조소과를 졸업하고 78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이후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가족 가운데 金鳳九(60년卒·사단)·김태관(92년卒·장남)·이재나(93년卒·며느리)씨가 미술계 동문이다. (南)



는데.

“우리 나라 식품·외식산업 종사자들 가운데 그동안 관공산업의 역군으로서 노력해온 분들이 많으나 제대로 대우받고 평가받는 곳에서 멀어져 왔어요. 이 상의 의미는 세계와 물결 속에 관공산업 선진국가들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관공산업의 역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고궁의 규모와 향후 비전은.

“고궁은 직영과 가족 점포로 현재 전국 24개 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전주본점을 축으로 외국인들의 판문인 인천 공화·안산동·명동을 연결시키는 ‘전주비밀방’ 로드가 드디어 확보되어요. 또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 1~2천명 비비방 이벤트를 실시해 전주비밀방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문화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亨)



광주·전남지부

정기총회서 신입회원 환영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宋 彦鏞)는 최근 덕양리조트 송강홀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 행사를 열었다. 전년대 음악교육과 鄭愛蓮(73

년 晉大卒)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동창회 운영이 어려운데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동문 각자가 동창회 활성화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동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사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어 신입회원을 대표해서 광주지점 李棋鎔(75년 法大卒)검사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광주대 음악학부 차美愛(81년 晉大卒)교수를 비롯한 음대 동문들이 축하를 보냈다.

공과대학

장학금 1백억 모금 계획 세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南正鉉)는 지난 1월 12일 서울 소공동 조선평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이 이날 신년회에 참석해 축하사를 하고 동문들을 격려했다.

이날 모임에는 南基鏞(43년 京城帝大卒)·金基衡(49년卒)·鄭哲圭(52년卒)·徐廷旭(57년卒)·池澤(58년卒)·孔大植(60년卒)·李基俊(61년卒)·劉常夫(64년卒)·吳明(66년卒)등 동문 등 2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南正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비전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1백억원의 목표를 세워 장학금 모금 운동을 펼쳐나가기다"고 말했다.

'비전 2010 프로젝트' 공동위원



장으로 李憲燮(60년卒)·동진세미 김 회장·韓松澤(63년卒)·모교 명예교수·許錫奎(63년卒)·일진그룹 회장·李長茂(67년卒)·모교 교수)등이 지난 이사회에서 선임된 바 있다.

부산지부

지역사회 봉사 다짐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柯基成)는 지난 1월 19일 부산 하노버컨벤션웨딩타운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회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는 동창회가 여러 동문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했다"며 "올해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金鍾旭(65년 二大卒)상임부회장은 결산보고 및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 행사에 대한 자금 운영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달했다.

진주지부

가족 동반대회 열기로

진주지부동창회(회장 申順澈)는 지난 1월 14일 진주 동방호텔 테라스룸에서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4월경에 동문 가족들이 다함께 하는 동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현재 동창회 이사진으로 있는 동문들의 연령층이 너무 높아 활발한 동창회 활동을 위해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계획했다.

김포지부

이웃사랑 실천 '결의'

김포지부동창회(회장 金鍾逸)는 지난 1월 10일 김포시내 한식당 '갈나무'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더욱 친목을 강화하는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보람 있는 일들을 찾아 활동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특히 동문 중 연세가 많아 병중에

포항지부

洗相福회장 선출



포항지부동창회(회장 金熙聲)는 지난 1월 20일 포항 시 그너스호텔 토라즈룸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金熙聲은 인사말에서 "임기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선출된 신입 회장을 동문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도와 동창회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洪相福(69년 工大卒)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洗相福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연임제를 통해 한 회장이 오랫동안 동창회를 맡아왔지만 이제는 단임제로 신선한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갈수록 동문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동창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신 분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교에 입학하는 김포지역 신입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으며,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로 했다.

이어 참석한 20여 명의 동문 모두가 다짐한 한마디로 나누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대전·충남지부

복지재단에 성금 전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順)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유성 관평호텔 김용배가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자는데 11월 23일 개최한 '음악의 밤' 결과 보고서 이날 모금된 5백80만원을 대전시 선아복지재단, 대덕구청, 계룡지체장애아복지사업, 노인정 등에 분유아웃돌기 상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 2005학년도 모교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수기로 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월 22일 대전시 한국기원에서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록대회를 열었다. 스위스 리그 형식으로 치러 단체전에서 한남대 교수님, 개인전에서 서울성광외국어원 朴健寧(69년 醫大卒)원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구·경북지부

신년회서 친목 다져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池弘源)는 지난 1월 13일 대구시내 프린스호텔 글로벌에서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李美善(88년 人文大卒)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池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협력·영광이라는 동창회의 모토에 맞추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다짐"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池弘源(64년 法大卒·변호사)회장, 金仁鏞(71년 法大卒)부회장, 鄭世희, 대구광역시 金鍾鎔정무부시장, 대구고등학교 李熙鎔(73년 法大卒)수석부장관사, 연경대 李相廷(71년 工大卒)총장 등이다. (李)

간호대학

3월 16일 정기총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淑子)는 지난 1월 12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신관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 및 신입 학생 축하연을 개최했다.

俞淑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도 골프 등산모임 등의 화성회와 동창회 장학금기금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옛 추억을 되살려 재학생 동아리 모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1월 10일 학장에 취임한 朴誠愛(70년卒)교수는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맞춰 세계적인 간호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대학동창회는 오는 3월 16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신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좌로부터 金錦順·洪京子·朴貞浩·俞淑子·朴誠愛·金花中등문

패션산업과전

金鍾福회장 선임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鍾福)는 지난 1월 20일 서울 리츠칼호텔 금강실에서 7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겸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 회장에 金鍾福(71기·SJT대디자인직업학교 학장)봉문을 선출했다.

신임 김회장은 "내년 패션계를 선도하는 리더들의 모임에 회장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1년 임기 동안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교 성광과학대 鄭正煥장이 金鍾福회장에게 축하패를 건

넸으며, 김회장은 늘 한 해 임원으로 수고할 동문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政鳳(2기·인스모드 플래닛 대표)수석부회장 ▲崔熙五(3기·형지이퍼럴 대표)·權繼善(4기·SM아동복 대표)부회장 ▲金明浩(2기·서울패션디자인센터 소장)·金龍瑞(4기·우희이퍼럴 대표)감사 ▲李智나(2기·텍스터일 타임즈 발행인)사무총장.

— 비로 잡습니다 —

지난 322호(1월 15일자) 6면 李相鎭부지장학회 기사 중 부위 '高級課長'을 '高級課長'으로 바로 잡습니다.

법과대학

신년회서 4백여 동문 인사 나뉘

법과대학동창회(회장 丁海昌)는 지난 1월 26일 서울 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玄鵬鍾(43년卒)·金道熙(47년卒)·劉鍾海(54년卒)·孫一振(51년卒)·李眞熙(55년卒)·李相赫(58년卒)·尹世榮(61년卒)·李樹宰(66년卒)·金學元(70년卒)·成煥賢(73년卒) 등문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SBS 申容敏(88년卒)이나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대중가수 주현미씨, 모교 법과대학 노래대 '동매' 등을 초청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현미씨는 노래에 앞서 "남편 친구인 成煥賢선생님이 자리에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다"며 "서울대 법대 동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박수감례를 받기도 했다. 成煥賢(81년卒)동문은 참



좌로부터 成樂實학장, 孫一振·李眞熙·丁海昌·金學元·尹世榮·李相赫동문

석자들로부터 형인 成樂實학장과 함께 노래 부를 것을 요청받았으나 成학상의 고사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국회의원인 朴振(78년卒)동문이 무대에 올라 32회 동문들과 함께 '편지', '젊은

그대'를 열창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를 위해 金道熙·金學男(52년卒)·李命仁(56년卒)·趙南福(57년卒)·高宗顯(60년卒)등문 등이 헌금과 물품을 헌정했다.

교육학과

제해민 등기 성금 모금

교육학과동창회(회장 朴成倉)는 지난 1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 3층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徐明源(46년 京城大卒)·姜吉秀(75년 大學院卒)·金宗西(49년卒)·鄭元植(54년卒)·李相赫(60년卒)등문을 비롯해 2백20여 명이 참석해 담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남이시어: 자진해민 재해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다음 행사인 홈커밍데이 행사가 5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상과대학

배너광고로 3천만원 수입 거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晟)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서강문화회관 생상을 소년회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스탠딩 형태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0분 만에 흥회를 마치고 만찬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만에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 결산보고 결과 지난해 1억 7천4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그

중 3천만원은 홈페이지(www.sangdae.com) 배너광고 사업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 광고 수익금은 전액 모교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쓰여진다. 참고로 상과대학총회 회장장학회에서는 2002년부터 복지장학회로 전환해 매년 모교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총회 후 이어진 행운권 추첨 시간을 통해 한국금공신문 李樹根(57년卒)회장이 대미 스퀘어의 행운을 차지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회보 속간...연4회 목표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勳煥)는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빌딩 3층에서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속간된 회보를 배포했다.

尹勳煥회장은 "각 학과별 동창회와 유래를 강화하고 동문들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 93년 이후 농생대 소식지와 통합하여 발행해 오던 동창회보를 다시 속간하기로 결



정했다"며 "과거 전통을 계승하고자 창간이 아닌 속간으로 장해 호형은 44호가 된다"고 밝혔다.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는 앞으로 2년간은 6월과 12월 2회 발행할 예정이며,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4회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속간된 회보는 16면 전면 컬러로 許文倉(54년卒)·金樂顯(57년卒)·禹昌命(70년卒)동문의 글과 학과별 소식 등이 실렸다.

한편 최근 71학번 대표들을 중심으로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2차 회기가 열린 바 있다.



앞줄 좌로부터 李章漢동문, 세 명 건너 洪完基·孫京植동문

최고경영자과정

제4회 AMP대상 시상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AMP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孫京植(23기·CJ그룹 회장·분회 회장)·洪完基(27기·웅진HJC 회장)·李章漢(37기·동근당 회장)등문에게 상을 수여했다.

孫京植동문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 삼성 분리 이후 CJ그룹을 더욱 든든한 구조로 성장시키고 고령 최우선주의의 실현으로 국민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제4회 AMP대상 시상식은 지난 94년 동근당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내 최초의 원관선생자제생 원암제 CKD-732 등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과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수상자 가족을 비롯해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기계동문회

홈페이지·회보 단장

공대 기계동문회(회장 孫郁)는 지난 1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 분회 林光洙회장이 참석해 동문들을 격려했고 축하했다.

기계동문회는 올해 회보·홈페이지(gong.snu.ac.kr/~mochdong)를 개편해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보의 경우 올해 줄임 20·30주년을 맞는 가수들에게 특집·기획기사를 부록하는 등 단순 소식지에서 벗어날 고단전보를 담아 읽히는 회보를 만들 계획이다.

이날 만찬 시간에는 朴和承(72년卒)한국기계연구원장의 연구원 소개와 李院浩교수의 '세계 제1인 기계공과 육성방안'의 집필동기 및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다.

국어교육과

동문간 상견례 개최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朴燦久)는 지난 1월 3일 서울 코리야나호텔 스페이트룸에서 李樹百(49년卒)교문을 비롯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동문간 상견례, 원로 동문들의 덕담, 총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회에서는 지난해 활동보고와 결산보고가 이루어졌다.

정치·외교학과

회비·기금 실적 보고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駒)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별부동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활동·결산·감사보고와 올해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졌다. 결산보고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3천7백65명의 동문 가운데 2백67명이 동창회비로 총 7천6백여 만원을 납부했으며 기금 총 일반기금은 3억3천3백66만원, 기금확충추진위원회 기금은 9천1백83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12월 14일 기준)

자원공학과

전국 도시 순방 계획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삼성동 삼익센터에서 玄鵬九(54년卒)·申善浩(56년卒)등문을 비롯해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尹友錫회장은 "올해는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모아 동창회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 중 45회와 10회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17회 9명, 25·43회에서 각각 7명·4명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南)

세계에서 제일 먼저 담배 추방한 국가가 되어봅시다!

동문을 찾아서 朴在甲 국립암센터 원장

물론부터 담배값이 5배만 정도 오른 것을 계기로 많은 흡연가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3배만 이상은 참아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최근 청와대도 경내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3단계에 걸친 '담배의 전쟁'을 선포했다.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구강·식도·신장·위암 등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암관리와 대책에 대해 국내 최고 의 암 전문가이자 국립암센터장인 국립암센터 朴在甲(73년 韓大卒)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 '서울대 출신과 암'이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서울대 출신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고, 서구화된 생활을 하며,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서 수명이 길다고 가정한다면,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죠. 평균수명이 늘수록 암발생 빈도는 쉽게 고지쳐 지나 안전장벽이 인위적인 암은 넘게 되는 거죠.

일본이나 영국은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는데, 우리 나라는 4명 중 1명이 죽는 겁니다. 서울대 출신들은 일본이나 영국 생활에 가까워지고 수명도 길어져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특히 미국에서는 남성암의 3분의 1이 전립선암인데, 우리는 현재 3% 정도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전립선암 비율이 10분의 1로 쪼. 우리 나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서구화돼 전립선암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성 동문들은 특히 전립선암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 서구화돼서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량이 부족한 이유로 대장암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한편 여성 동문은 자기 일을 하느라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도 적게 낳는데 분유를 먹일 확률이 높고 보령 유방암을 조심해야 하고 또 선진국 질환인 대장암도 조심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등 진단 기술의 발달로 갑상선암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가 장을 한다면 폐암도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 흡연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2층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CEO는 폐암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담배와 관련된 방광암, 종곡암, 위장암 그리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동문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원장님이 계시는 국립암센터로 와야 하나요.

대답: 본보 朴在甲은실위원 (조선일보 전문기자)

서울대 출신들은 암센터를 이용해서도 되지만 우수한 고급진료와 첨단장비를 갖춘 서울대 병원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전국의 암센터나 병원들이 잘 운영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본 제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없어서 하기 어려운 임상실험이라든지, 연구용 신약에 대한 검증 등을 해야 하는 거죠.

— 국내 암 치료수준이 세계 10~11위라는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와 걸맞는다고 보시지요.

우리 나라의 암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위암·간암·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치료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폐암 치료수준도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유방암·대장암은 韓國期(진행된 정도에 따라서)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치료성적은 최고 수준인데, 우리



본과 우리 나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현재 우리의 두 배 정도인 8%를 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저마로 된 의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수입의 1%를 보험료로 더 내라고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남성 전립선암·여성 유방암 조심 흡연 원인 암으로 매일 50명 사망

의 의료제도가 왜곡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진국만 되면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보령의 혜택과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공약하는 한편서도 그로 인해 세금유를 더 내야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자가 안에 걸리면 50%는 자기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대장암, 위암은 첫째에 1천만원이 드는데 보험 등으로 5백만원이 총액이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나서야 하는데,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의사를 문단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놓아서 그것도 용이하지 못합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암센터라고 봅니다.

— 암 치료를 위한 재정문제에 대해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오는 3월 11일 암센터가 '암 치료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부족한 보험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기 수입의 4.2%를 보험료로 내는데, 미국인은 15%를 넘니다. 우리보다 뒤늦게 뛰어드는 대만은 일

니다. 1%를 더 내서 우선 암치료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평소에도 자기 수입의 1%를 더 내고 자기 집안에 암환자가 발생시 국가가 보장해준다면 대부분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환자인 저소득층 3.5%는 어차피 보험료를 안 내는 분들이고, 오히려 그들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험료 1%를 더 내어 4조원이 모인다면, 혜택을 못 받던 입환까지 보장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를 더 거둬서 뇌졸중, 심장마비 등 중증질환을 보장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1%를 더 올려서 18세 미만 소아와 미성년자의 치료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1% 더 내서 나머지 자기 부담금을 낮춰주는 거죠. 그 대만 수준인 8%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 갭이 깊은 낮은 수가의 병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떻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민병의 공원이 갭기에 보험혜택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암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죠. 문제는 보험료를 적게 걷고도 미국처럼 혜택을 주겠다고 떠벌어대는 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장을 설명하고, 보험료 1% 더 내기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 원장님께서는 담배를 '공적 1호'로 삼아서 추방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입니까.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나라가 성인남자 흡연율이 1위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1년에 암으로 6만4천여 명이 죽는 데, 그 중 30%인 1만9천2백여 명이 담배로 인한 암으로 사망합니다. 매일 50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한계 삼공 백화점 시도가 일어나고, 나중에 한번 대주자처럼

참사가 생겨 일어나는 인사 사고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국민이 1년에 5만명쯤 됩니다. 매일 1백30여 명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왜 조용하게 있는 겁니까? 담배에 관한 한 저도 커다란 책임감을 지어 하는 것이, 국민에게 담배의 해악을 제대로 알리야 할 저 역시 예전에는 담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대 동문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기금 담배와 암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재원에서 지는 경우가 있는단..

지관부가 서울대 의대에 의전초회를 했을 때, 담배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쓰고, 누구도 100%를 증명할 수는 없기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부수적으로 쓴 것이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李經都(사무총장도 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담배와 폐암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없느냐를 묻는 것은 지각이 동그란지, 평평한지를 논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 과연 법으로 담배를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담배의 제조·매매 금지에 대한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인데, 지난 2001년 양선터 개헌식에서 당시 金大(대통령)에 양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는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입법 예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공개로 건의할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치료의사협회, 치료병원협회 등의 의회계의 정동들이 결의문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 3사의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추방했고요. 연합뉴스

을 포함한 12개 신문사가 휴면사전을 안 신기로 하고 금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연방위원장들이 담배추장 운동용 배지로 사인을 했어요.

현재까지 국회의원 1백60여 명이 현재까지 1백19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2백99명 대부분을 만나면 최소한 2백명 이상은 동의해 주실거예요. 이렇게 동의를 구한 후에 10년 후부터 담배를 제조 및 판매 금지하는 입법 청원을 할 겁니다. 대마초는 마약으로 규정해놓고, 그보다 더 독한 담배를 맘대로 사고팔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담배로 인해 국민이 매일 1백30명씩 죽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 법안에 반대할 국회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이 저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외국이 있다고 물어오는데, 왜 우리가 담배를 제발 먼저 추방한 세계 1위가 되면 안되는 겁니까? 외국이 나 한 다음에 할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해야만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우리를 우러라 볼 것이고, 대한민국이 하는데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파국유망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환자의 원장님은 의사 재하시설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인가요.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는 사실 낙담처럼 앞으로 뭐가 도어지지는 꿈이 없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나라가 불안한 시기에 배움지 않으려면 의사 자격증을 따라는 부친의 말씀을 따라 저수가 해서 의대에 진학했지요. 주변에서 이왕이면 수술을 하는 외과를 선택하라고 권유해서 외과를 하게 되었고, 마침 지도교수가 서울대 병원의 외과과장이 되시는 바람에 저가 교수로 불리게 되었지요.

공부는 안하고 영국, 독일, 스위스 8번서 박사과 교수까지 되었으나 제가 원하나 몸이 달렸었어요. 늘 저는 교수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중에 정년퇴임까지 가 나라도 제대로 하질 못한다는 당시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가치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지요. 당시에 국내에는 안색표를 시험관으로 자를 수 있게 국내에서 개발한 암세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82년부터 지금까지 세포주를 만들어 왔고 한·미·일·독·영·미·대 1990년부터는 유전성 암에 대한 연구도 하든 것입니다.

— 외대 연극반 '외국' 멤버이셨는데, 지금도 만나십니까.

외국호의 어떤 정기공연 일정이 2월 4일부터 7일까지가 동경회보가 나올 때쯤이면 공연이 끝났는데요.

— 출연은 안 하시니까.

재하시설에는 무대에 올 번쯤 시보고 기록도 해왔지만, 요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출연은 못합니다. 대신에 후원금을 내고 있고, 그런데 서울대 외대 교수 중에 연극반 출신이 많다는 거 아니냐요? 연극공연을 위해 기획, 무대, 조명, 소품 등을 담당하는 '스펙트럼' '컬러'라고 불렀어요. 부대 뒤에서 남들을 위해서 다고 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 컬러 기질을 보고 교수로 뽑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흔히들 '의사가 하라는 대로'는 하고, '의사가 하는 대로'는 따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담배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담배가 나쁘면 의사부터 안 피우면서, 자기는 절대 안 피우며, 담배는 독약이라고 해야 옳은 거지요.

— 술은 건강에 괜찮은 겁니까.

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에 두 잔까지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술은 발효식품이니 조금이나 주류를 피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마시는 것은 건강에 괜찮다고 봅니다.

— 원장님께서는 골프는 하십니까.

저는 1년에 네 번쯤 골프에 나갑니다.

— 비빔밥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힘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라는 것은 한한데, 한가지 일을 해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지요.

— 원장님도 오래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 건강검진이 암예방의 최선책 섬유질 많은 비빔밥 많이 먹어야

저의 약전 중에 하나는 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유원산에서 빨리 걷기와 2시간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고, 제가 연호에 모 신문사에 건강에세이를 썼는데, 담당부장이 '북부바빈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고 추가하는 바람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웃었거예요. 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넣으려고 해요.

— 조산일보 자료를 보니 원장님 체중이 80kg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 그러나 원장님의 음성을 들어봐서는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1972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몸무게가 72kg이 나다가 와이프에게 잘 얻어먹어서인지 6개월만에 78kg으로 늘어났어요. 20년 정도 78kg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인장이 되고나서는 1kg씩 늘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하고, 체력을 유지하려고 먹다보니까 이렇게 됐지요. 체중이 늘면 못 배는 것이 조의 큰 딜레마예요.

— 원장님도 암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이지, 제가 암선별 원장이 된 후 존

함검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불안했는데요. 저에게 암이 발견되면 남들이 얼마나 비웃을지 하는 걱정도 했지요. 지금은 해마다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어요.

— 역시 건강검진 받을 때 암 등을 검사해 보는 것이 암에 대처하는 옳은 길이겠지요.

그럼요. 그러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배를 안 피우고 간접흡연 주사들 맞음으로써 폐암과 간암을 예방부터 예방할 수 있고, 위암은 암 진단기에 잠깐 걸려서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장암은 폴립 제거를 통해, 자궁암은 자궁경부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은 일찍 발견하기가 쉽고 일찍 발견되면 90% 이상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암 사망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가에서 5대 암 검진을 해주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이 워낙 커서 가장 중요한 거지요. 지금은 저소득층 50%정도만 혜택을 받지만

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앞으로 15년 내에는 어떤 살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왔어도 결국엔 죽는 사람이 있듯이 암환자는 100% 모두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요.

어떤 담배는 무조건 피우지 않고, 유해성분이 적은 담배를 쓴다면 심정질환을 앓을 수 있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 암에 가족력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대부분하는 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콩팥에 생기는 암 등의 대략 5%는 대가족을 한다고 보소. 잘못한 유전자나 자식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 서울대 의대 출신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서울대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와 국민을 살려서 사 재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친자적인 두뇌를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의료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업하신 뒤부터 지금까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게 유효한 선서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물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들으 배우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 생각이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

제가 서울대 외대 교수가 되고 나서 늘 모교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서울대 임원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3백억원(당시 환율로 4천만원에 해당)을 기증받아 삼성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빚을 갚았다는 생각으로 미안한 감정을 풀을 수 있었습니.

사실 저는 서울대 외대에 시험을 봤다가 2등급에 합격하고, 1년 자수를 했었습니. '지수까지 하고 공부도 안 하면 종이 어떻게 교수가 되어서 잡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저를 붙들었다는 생각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험에서 실패를 맛보고 나니가 결심해 지다라고요. 요즘 재수생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재수하고도 국립암센터 원장이 되어서 심심한 일 잘한다고 말입니다. 또 수험생들 큰 큰보님들도 자기 자녀가 대학 시험에 실패하면 "국립암센터 원장이 1차에 떨어졌지만 나중에 저렇게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결국은 의외시스템과 담배는 버리고 미주치게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와의 앞으로의 '투쟁계획'은.

저 남은 인생을 통해 그 두 가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담배 제조·판매 금지를 성공시키는 일이고, 둘째는 유해물질의 의료제도를 바로 잡고 보양식품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암선별의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문선별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사연해달라"고 말합니다.

(정리=安聖賢 기자)

동문기자 취재수첩

청와대 출입기자의 애환을 아시는지

청와대는 좋은 출입처다. 기사가 많기 때문이다. 그날그날 생산되는 뉴스거리가 많아서 기록하고, 머리를 써고고 고! 할 일도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루가 멀다하고 모든 언론의 품을 장식해줬으니 말이다.

지난 2년간 대통령에 생산한 말을 글로 적은 다음 일별로 세운다면 지구를 한바퀴 돌고도 남았을 것이지는 기자들 사이의 농담도 있다. 그 말을 따라 우리의 눈과 귀도 지구를 한바퀴 돈 셈이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위로의 소리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A4 용지로 10장 이상 분량의 말을 생산해 왔다.

청와대는 그래서 힘든 출입처다. 대통령의 말하는 힘은 배어 나가기도 쉽지 않는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기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애환이다. 다른 나라를 가본다는 설렘과 기거가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대통령의 말에 파문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사이에 15개국 18개 도시를 방문했다. 방문 국가는 정상회담과 공식 연설 등 주요 일정이 진행됐고 그것으로도 기거하는 법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고통은 다른 데 있었다. '공포간담회'로 알려진 동포간담회가 그것이다. 대통령은 가는 도시마다 동포

간담회를 했는데 30분, 1시간 정도의 연설은 보통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북핵이나 국내 경제 관련 주요 발언들이 속속 동포간담회를 통해 나왔다. 오늘 동포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이 또 무슨 발언을 할까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호텔에 마련된 기사작성실을 떠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저 고정도 팔자라는 말처럼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를 담당하게 된 기자들의 일보러니 여기고 수용할 수밖에 도리가 있었는지?

청와대는 나쁜 출입처다. 취재원과 언론의 의사소통이 사실상 일방적이다. 주는 것만 받아 적어 전달하는 선을 뛰어넘기 어렵다. 기자들의 청와대 비서들 출입이 참여정부 들어 금지된 것이다. 일주일 몇 차례 대통령의 공식 행사가 치러지면 그때 소수의 기자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고 참모들과 잠깐 문답을 나누는 것이 거의 전부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이 첫 번째로 만나는 국민이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도 결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지 대통령의 언론관을 참여정부는 낮은 유착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기자들을 직접 만나 뵙는 경우가 여간 드물었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생방송 의사소통의 자리가 될 수는 없다. 보고 듣는 것이 비슷하다 보니 기자의 차별성을 파악하는 기자들의 노력은 인위적 가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발언에 대한 취사선택과 시각잡기에 따라 기사가 달라진다.

청와대는 머리 아픈 출입처다. 대통령도 발언 내용과 방향은 사실상 예측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발언이 원고 없이 진행된다. 핵심 참모들도 대통령의 다음날 발언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알지 못하는 경우

대육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말이 최종 정책이 아니라 토론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청와대 참모는 부처의 정책 수립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참여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심하지 않으면 곤란에 처하기 쉽다. 또 정책 통화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선이 어려움이 더해진다. 그래서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일도 가끔 생긴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기자들의 진화를 잘 보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긍정적으로 평가해두고 싶다.

청와대는 빈부격차가 심한 출입처다. 단장 전화 통화 내용부터 기자단 격차가 심하다. 마주 앉은 것도 아니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영영 잊은 매체의 기자를 대할 때면 답답해 죽어 싶기도 하다. 그래서 취재원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 출입이 금지되다 보니 함모님과 기자의 만남은 많지 않다. 술자리를 통해 이뤄진다. 비록 속 깊은 의사소통은 안 된다 해도 이런 자리에도 끼는 사람만만 주로 간다.

영어가 사려진 청와대 기자실(오피스, 엠바고), 영어가 대우받는 청와대 비서관(모드렐, 매뉴얼), 하청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독서실 형상모양의 기자 작업대, 대부분 답변 내용이 예상되는 대변인의 일일 브리핑, 참여정부 들어 많은 것이 변했다. 답장된 청와대 기자들의 품격을 잘 보는 것이지 나쁜 것인지 언론자들에게 연구를 권하고 싶다.



李康德
(88년 社會大卒)
KBS 정치팀 기자

가 있다. 함모들에 대한 취재는 오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특히 대통령의 원로중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관련 출신의 경우 자신의 현실적 진단이 대통령의 해법과 담합도 결국 입을 달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급식비 5백원 올린다고 해결되나?

초등학교 2학년? 대식이를 처음 만난 것은 작년 9월이다. '아빠지 키움, 열매가 시달 일을 하며 3년에 키움, 자녀를 굶는 경우가 많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함.' IMF 이후 아빠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서, 3남매는 고스란히 엄마의 품에 왔다. 식당 일을 맡게고 밤 11시가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엄마는, 자고 있는 3남매 머리를 쓰다듬으며 '숙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 이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때마다 대식이가 '엄마, 음식 많이요. 내가 아빠 뭉개지 않게요'라며 엄마를 위로했다. 이제 겨우 아들 삼, 가장 두통을 하기엔 아가가 너무 작아도 말았다.

석종이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3년 전 엄마가 기종한 후 이해와 살고 있는 석종이는, 반에서든 소문난 '싸움판'이었다. 크레파스 등 준비물을 가져오는 날이 드물었고, 선생님은 석종이를 '보내자'라고 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석종이는 '아무 것도 없다'고 의연했다. 낯을 익힌 후에야 아이는 '수험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내 주제를 팔...'이라고 말해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

그랬던 아이들이 다섯 달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석종이는 '선생님 기억하겠

니'라는 질문에 씩 웃으며 '그럼요'라고 씩씩하게 답한다. 통통스런 표정도 사라졌다. 대식이는 '수업 시간에 손글씨 발표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자랑이다. '우리아웃학교'를 다니며 달라진 모습이다.

우리아웃학교는 조선일보와 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 기업들이 힘을 모아 결식아동들에게 맛있는 저녁과 재미있는 공부를 선물하는 방과 후 교실이다. 팔자가 아픈고 있는 조선일보 우리아웃네트웍스에서 지난해 5월 '30만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결식 아동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한 이후, 직접 아이들을 돕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백에 끝마친 글씨로 '배고파'라고 낙서했던 승재, 배고픔을 잊기 위해 아침마다 학교 운동장을 20바퀴 뛰었던 유석아, '식문화'이라는 별명이 죽기보다 싫었던 승우... 배고프고 미운까지 고른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사회적 충격이었다. 각계에서 지원과 관심이 쏟아져 우리아웃학교가 출발할 수 있었다.

보도 당시, '30만이라는 수치는 과장이며 실제 가나를 서는 결식 아동은 50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정부도, 결국

대도를 바꿔 아이들이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결식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를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5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아직도 길 길은 여진히 많다. 이만 '부실 도시락' 때문에 보도, 정부 지원이 아이를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혜자'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른 이후 급식 단가를



許仁貞
(95년 社會大卒)
조선일보 우리아웃원장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가 조정보다는 대상 아동의 확대와 아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다.

우리아웃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

은 '실질적인' 결식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아동'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 하체와 경제 위기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결식 아동들 대부분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우물쭈문 증세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문과 배고픔만 사려진다고 결식 아동의 몸과 마음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이 상태로 큰다면, 사회 전체의 성장도 꿈꿀 수 없는 일이다.

'사랑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아웃학교를 다닌 아이들의 변화가 그대로 보여준다. 불과 며칠이 걸렸지만 아이들은 발표력이 늘고, 성적이 올랐다. 자원봉사자들의 끈끈한 유대감이 아이들의 표정까지 밝고, 환하게 바꿨다.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해 매일 손바닥을 맞던 아이들은 우리아웃학교의 도움으로 더 이상 '문체' 소리를 듣지 않는다. 자신 같은 아이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를 이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은 심을 바꾼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조선일보의 '우리아웃'은 계속될 것이다.

화제의 동문

결혼정보회사 듀오 金惠正사장

국내 최대 회원 보유 ... 신뢰·인지도 1위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을 하는 동안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거나 만난 여우조자 없는 게 요즘 현실이다. 그래서 때론 학원과 커피숍들을 비롯한 각종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도 우연을 가장(?)한 이상적인 만남은 쉽게 찾아오질 않는다.

어기 국내 부동의 1위를 지키며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1만명의 善男善女에게 소개하는 반쪽을 찾아준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金惠正(86년 人文大學)사장은 앞으로 기업체와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각 대학동창회와의 제휴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홈페이지 듀오(duo.co.kr)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교 동문(직제 자녀 포함)에게는 25%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국내 최고의 알트린 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작은 변화에도 적극 나서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좋은 배우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남의 시선까지 신경을 쓰다보면 그 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우그룹 공채 1기로 입사, 대우자동차 홍보실과 (주)대우 회계감을 거쳐 미국에서 MBA 과정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파워우먼'인 金惠正씨는 역시 수십 년의 맞선을 본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1년을 넘게 고생하면서 제 짝을 찾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던 남편도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한 달 정도의 여류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휴가가 끝날 무렵 저의 산을 보게 됐는데, 대화를



예술의 65% 차지, 신뢰도 및 인지도 1위."

2001년 CEO로 부임 후 지금까지 '듀오'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었다. 1995년 2월 창립 이래 계속되어진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金惠正은 '노벨레스' '리메리' 클럽을 신설하고 연간 2백여 이벤트 행사 개최, 예비부부의 혼수와 신혼여행 등 예선에 맞는 패키지들을 제공하는 온라인 웨딩컨설팅 서비스(duowed.com)를 개시, 더욱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며 CEO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2003년에 도입한 '프로필 매칭 시스템'은 오직 듀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 절정의 프로그램. 1년의 가입기간 동안 매월 컵을 매니저가 선정해준 4명의 후보자에게 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소개받아 마음에 드는 아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게다가 자신도 상대방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처음 상대방의 프로

파일하면 연락처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만남이 이루어진다.

듀오가 IMF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과 투철한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金惠正은 자신 있게 말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파악해 젊은 세대의 니즈를 그때 그때마다 만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께서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직원의 85%가 여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 돕는 게 참 많아요. 육아와 사후결혼, 결혼까지 갖출 베테랑 커플 매니저들과 이벤트 전담팀, 홍보·마케팅·고객관리팀 등의 젊은 직원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 역시 '혼남'을 맞이하고 벅을 할 때도 직접 안내 데스크까지 나올 정도로 손길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쏟고 있다.

"사실 제 사무실과 직원들을 기로하는 이 벽이 싫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과도 어떠한 공간대를 형성하며 대화를 많이 나누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이 벽도 싫은 겁니다."

작년의 경제불황으로 목표는 처음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동안 꺾이지 않은 매출신장세가 감소했기 때문. 그러한 위기가 오히려 직원들과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올해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대대적인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이곳에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정에도 펼칠 수 없이 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미래에 대한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디에도 이치랄 자신이 꼽꾸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연락처: 1588-8811) (表)

"25% 할인 받아 좋은 인연 만드세요"



지난해 12월 호텔에서 개최한 미팅 이벤트

나눠보니 뭔가 통하는 게 있어 대심 기대를 했죠. 그런데 엄청 내인 모피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인연이 되려나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국내 최대 2만여 회원 보유, 업계 총

평을 받으면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된다. 관심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추가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가는 게 있어 나름의 만남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신중함까지 고려했다. 최종 단계에서 서로가 수락의사를

동문 기고

바이틀 이슈(vital issue)

철재의 산타아고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盧武鉉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 1번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자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바이틀 이슈(vital issue)'로 삼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를 두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침공할 의도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문제(북핵문제)를 처음으로 '바이틀 이슈'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바이틀 이슈'에 대해 우리 나라 외교통상부는 '중요 문제' 또는 '매우 중요한 문제'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고 있으나 그리 간단하게 풀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은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 국민의 대테러 정서를 감안하고 또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전략과 동맹국 수행을 위한 군사력 사용 우선 순위를 놓고 살펴 볼 때 같은 해석은 부적합하며 말이 뜻하는 것처럼 미국 국민의 처사에 걸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그동안 '탈냉전'

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개입과 확대정책(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적극 추진하며 예상되는 불량국가나 조직, 단체들의 공격에 대비한 미사 방어방위제(MD)를 구축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보호하는 세계적용 유자에 적극 나섰다.

이 같은 전략은 9·11테러 발생 후 더욱 강화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추진과 함께 현대전의 특수성을 감안한 선제공격(preemption)은 물론이고 선제적 선제공격(preemptive preemption)까지도 분사할 것을 공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서 미국은 미국, 유럽, 일본을 잇는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며 기존의 개입과 확대정책을 강화하여 21세기 세계를 자유민주주의로 이끔으로 하는 단일화 질서로 형성,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 건설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 수행을 위한 군사력 사용 우선 순위로 첫째 미국 국민의 사할적 이익(vital interests), 둘째 중요한 이익(important interests), 셋째 인도주의적 이익(humanitarian interests) 침해의 경우로 구분해서 미국인의 사할적 이익이 걸려있는 첫 번째 경우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서라도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군사력 사용으로 인한 이익과 부담을 權衡, 비교평가하는 중대한 이익, 인도주의적 이익 침해의 경우와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盧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바이틀 이슈'로 삼았다 고 한 말은 바로 이 같은 전략적 내용을 염두에 둔 의미 있는 발언이라 추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하위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쯤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서



金鍾達

(56년 法大卒)

북한연구소 이사

군사지 또는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영부 있는 집단체 자위권 행사를 강행하든지, 이러한 잔후 처리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多極의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게 분명하다.

알다 전 '스타브 해럴드' '애크아프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로 있을 때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정권의 변형 또는 변질(transformation)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보는 조심스런 일부 관측도 있었으나 그의 언급은 미국의 기존 전략에 따른 일관된 입장을 바린

것이며 6자 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6자 회담은 시기적으로 盧武鉉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은 동남아와 유럽 순방이 거론된 북한봉파론에 대한 무아와 6자 회담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 있는 복합적인 외교적 메시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시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일관성을 경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무성인한 대응에는 평화적 해결원칙에도 불구하고 제1기 행정부 때보다 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부시 대통령이 제2기 출범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이를 통한 '폭정의 종식'을 강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가 이를 제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면모로 그들이 그동안 해온 언행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시 대통령이 APEC회의에

참석했던 최고경영자들과 대화에서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분명히 바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언급한 점 등 일련의 언행은 모두 대북강경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의지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제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새 행정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국가전략이 새롭게 대두된 인권문제와 맞물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현실적으로 중대한 정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과연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북한을 어떻게 끌고 6자 회담에 복귀시키고 평화적 해결을 실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드로 윌슨의 乾達에 대한 憎惡

乙酉年 새해를 맞으면서 나는 光復後 60년이 되는 해라는 事實에 새삼 놀라고 大韓民國이 國家獨立에 嚴行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亡國의 慘狀에 있어 이토록 속을 곱혔던 國難喪失 35년의 歷年을 되돌아보며 자라나고 日南監獄에서의 解放과 獨立을 이루려고 機運을 삼고자던 先聖先哲들을 追慕한다.

己未年 3·1運動에 생가미 시절 때 '民族自主主義의 原則'을 提唱하여 國難精神을 獨立宣稱에 嚴行한다. 믿음은 堅固로 勇氣를 造成함으로써 大事의 進行을 鼓舞한 美國大統領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에 대한 敬意이 문득 閃光를 쏜다.

윌슨은 1918년 11월 11일의 獨逸降伏에 따른 1차 世界大戰의 終結에 있어 同年 1월 8일에 年頭敎書에서 새로운 世界秩序의 形成을 위한 14箇 要項(Points Fourteen)을 宣布했는데 제5요항을 보면 主權에 條約하는 關係住民의 利益은 他政府의 請求事項과 동등하게 重要하다는 原則에 근거하여 '모든 殖民地에서 提議하는 請求事項은 自由無阻하여 絕對公平하게 議決되어야 한다'고 表明하고 있다. 이것이 獨逸運動家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다음에 1919년 3월 1일에 民族自主의 大義를 부르짖고 蜂起하는데 重要하게 作用한 것이다.

윌슨은 뉴저지州州吏로 2년 勤勤한 후 白雲峯에서 8년 在任했지만 그 이전에는 法律學·政治經濟學·歷史學 敎授였고 全國의 名聲이 있는 舊道學·講道

者였으며 大學總長이었다. 1890년에 Princeton University 敎授院의 一員이 된 후 8년간의 總長직무 수행을 포함한 20년 勤勞院으로 1910년 6월 14일 그가 37살 나이로 卒業式에서 建國大統領 曺南 李熙를 이 35세의 나이에 '美譽이 影響을 미친 大士(Neutrality as '美譽'의 論文으로 博士學位를 直接 받았다. 曺南은 2년에 걸친 修學期間에 윌슨 및 그 家族과 親交를 가졌으며 그로부터 '將次 韓國의 自由를 回復한 大士'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1910년 8월 29일 韓日合併 前이었다.

윌슨은 투미히거나 잔강지거나 低俗한 사담들을 輕蔑했다. 그가 프린스턴대 在學時節 '日刊 Princetonian(1878년 1월 10日子)'에 編輯된이라는 篇中으로 실은 글에 이런 것이 있다.

'모든 나라의 건달(loafers)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나라의 大學校는 바로 이 걸출하지 않은 有善한 階層의 影響에 對抗하고 無力化하는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다. 모든 大學의 가장 중요한 目標은 젊은 이에게 보다 廣大한 知識의 根據을 줄 수 있는 聖賢한 上層을 提議하는 것 - 사람들을 正義와 眞理의 水潭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役事를 萬方에 派遣하는 것 - 이다.'

그는 大學에 간 후 學業에 힘썼으나 充分한 準備의 未遂으로 1學年을 마친 때 自己班의 優秀生 20명 속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서 그의 學力은 本軌道에

올랐으며 學府課程을 끝낼 때 그는 4년 평균 90點을 維持한 學生이었다. 윌슨은 프린스턴대 총장으로서 1906년 5월 19일 西洋 同論會 集會에서 다음과 같은 演說을 했다.

'나는 프린스턴이 存在하는 모든 榮光을 다 얻을 수 있기를 希望합니다. 大學의 最高榮光은 언제나 知的인 榮光입니다. 대학의 최고 영광은, 永遠不變하며 世代로부터 世代로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事物의 尊嚴氣 息으로 국민을 들어 올리는 저 高遠한 目的, 곧 이는 國民들이 이루려고 내세울 수 있는



尹 憲 淳

(63년 法大卒)

지침의회합전연구원 고문

最上の 地位, 그것과 관련된 것은 所與에서 發掘되는 그 나라 國運의 指導力입니다.'

윌슨은 Princeton 卒業 後에 Thomas Jefferson's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法律을 공부하여 辯護士業에 善于했으나 信譽와 素養이 못지 않아 27세가 되는 해 가을에 政治·經濟·歷史知識을 齊備하기 위하여 Johns Hopkins University의 大學院에 進學했다.

Bryn Mawr College의 敎授로서 31세가 되는 1887년 6월에(다음 해에 Wesleyan University로 옮긴다) 그는 行政學의 古典으로 남아 廣기인 '行政의 研究(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를 '季刊 政治學' 2에 게재했다.

이 論文은 政治行政 二元論을 주장한 것으로서 美國의 行政에 參與와 興隆에 의한 民主政治의 浮現으로 發達한다. 못하고 특히 1889년 12월 Andrew Jackson의 黨宣稱 書에서 非專門家에 의한 總務에 社會全般의 危機를 懸化시키는 狀況에서 그는 '건달(loafers)에 의한 破綻을 바라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行政은 民主主義의 繁榮을 위하여 政治와 無關係하게 專門의 知識과 能力을 소유한 者에 의해 企業經營에서의 같이 效率적으로 그리고 公平하게 遂行되어야 한다'고 의견 것이다. 나라는 自己美譽에 熟練한 者들의 奉職으로 보다 더 잘 發展할 수만 있었는 正義에 符合한다고 그는 論破했다.

윌슨은 대통령으로 青年期에 돌면서 信念과 理想을良心과 勇氣로 자기면서 自由貿易을 滿行 關係制度의 改革, 敎授이며 金宇塔 안에 埋藏된 金金庫制度의 改編을 가져온 聯邦憲法에 制定 등의 業績을 남겼다. 國際的으로는 1차 大戰 後의 世界平和維持會議에 職務代表로서로 主權의 問題로 참여했다. 國際聯盟現況이 포함된 對俄條約의 議會批准을 못 받아 그의 功績이一時 빛을 잃었지만 그는 後日 豫言者로 被稱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大韓民國이 亡國의 悲劇을 免하고 充分한 發展할 수 있는 發展을 이룩할 수 있도록 國運을 導하는 有善한 知識家와 的 欲을 獨立運動士들의 氣節로 阻絶한 責任이 彼等知識人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을 지켜서다

당뇨환자, 발 변형·궤양 조심해야

발자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발과 발목 질환을 전공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발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뚜렷이 느끼고 있다.

이처럼 당뇨병 환자의 발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당뇨병발이라고 한다. 특히 당뇨병의 이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맥 경화나 당뇨 신경증에 의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 당뇨병 협회와 족부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은 사람(특히 남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심혈관계, 망막, 신장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에 궤양이나 절단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발 상태에 대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감각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에 갈 때마다 발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발 검사란 우선 신발 소견 상 발가락이나 발이 변형이 있는가, 감각 기능에 정상인가, 딱딱이 있는가 등을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서 정밀한 신경 검사나 혈관 검사 등을 시행한다. 예방을 위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면 신경이나 혈관의 이상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발에 굳은살이나 티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의 압력이 높아 궤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직접 꺾어내다가 상처가 나면 위험하다. 또 자물신경 이상으로 발이 나지



李 愚 天
(79년 韓大卒)
서울백병원 족부클리닉 교수

않고 피부가 건조해 갈라지면서 그 틈새로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기 쉽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생중이 급속히 진행해 갈로 보아서는 대수롭지 않지만, 속으로는 조직이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발에 변형이 있거나 궤양이 생겼다면 특별한 제작용 당뇨병발을 신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피부에 불집이 생기거나 색깔이 변질과 더불어 변색되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약물과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죽은 경우에는 최신 치료라도 소용이 없다. 당뇨병은 환자나 보호자의 생각보다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항상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이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연락처: 2270-0042)

나의 건강법

유기농으로 텃밭 가꾸며 활력 되찾아

姜 恩 葉 (63년 美大卒) 계원조형예술대 부학장

원래 필자는 화초 하나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손을 가졌었다. 섬세하질 못해서인지 내 손에 들어온 화초는 오래 못 가서 병들고 초라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식물을 가꾸는

일에는 재주가 없다고 거의 포기할 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사를 오면서 사정도 멀고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채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다 치솟는 채소에 대해 농법에서나 유통과정에서 엄청난 폭소들을 우리가 매일 섭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가족이 먹는 채소는 내 손으로 재배를 해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시작한 나의 텃밭농사는 날로 발전을 하여 5년 전부터는 고추농사도 농약을 전혀 안 쓰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은 뿐 아니라 배추도 두



농약으로 재배하는데 성공해(벌레를 잡아버리는 방법이지만) 해마다 볼품은 별로 없어도 내가 재배한 배추와 고추로 김장까지 하고 있다.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나의 일과는 무척 바쁘다. 해가 뜨기 무섭게 일어나서 무엇에 이끌리듯 마당으로 나간다. 출근 전까지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을 밭에서 보낸다.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밭으로 향한다. 이렇게 가꾸어 수확한 채소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준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예민해서 며칠을 앓아 누울 만큼 심한 체증으로 고생을 했다. 그뿐 아니라 원인 모를 무기력증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나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어떻게 나빠졌는지 아침엔 해가 뜨기 무섭게 풍류방처럼 일어나서 밭으로 나간다. 집안으로 들어올 때 내 바구니엔 언제나 신선

한 야채가 가득하다.

나의 아침은 큰 접시 하나를 그날그날 신선한 상추, 토마토, 오이, 셀러리 등의 야채에 신선한 바질과 파마산 치즈를 듬뿍 깔아놓고 올리브 기름

과 발사믹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 한 접시와 두유 한 잔, 여름에 밭에서 따온 딸기나 토마토를 곁들여 만든 주스 한 잔이 전부다. 이 작은 농사일이 내게는 일석이조로 건강한 먹거리와 적당한 운동(노동은 운동이 아니라고 의사선생님은 말씀하시지만)으로 나를 지켜 주고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으로는 기쁨과 휴식을 취 복잡한 머리에 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텃밭 일이 좀 한가해지는 여름부터는 나의 여덟 마리 개들을 데리고 뒷문을 열고

나서면 바로 청계산 끝자락의 뒷산으로 등산이러기 보다는 산책을 나선다. 백구 두 녀석, 리트리버 한 녀석, 누렁이 두 녀석, 그리고 발발이 두 녀석, 보스턴 테리어 한 녀석, 모두가 사원이 있는 바려진 개들이다. 이 아이들이 또한 나에게 기쁨과 휴식을 안겨준다. 그래서 건강이란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삶의 요소가 됐을 때 내게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근에 만든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원 '수신재'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텃밭에서 식탁까지'라는 코스를 개설했다. 많은 분들이 즐겁게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까지 만드는 이 과정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요즘의 커다란 기쁨이다.

서울대 가족

黃漢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부인과 함께 동문·지역사회 봉사 실천

남동생은 모교 지원사업에 열정 쏟아

뜨거운 애정으로 부산의 지역발전을 위해 저마다의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는 5현여 동문들의 꾸준한 부산지부동맹회는 지난 해부터 부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하자는 비전을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0년 가까이 '부산 자립'에 실패의 근원과 이웃발전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해온 黃漢植(71년 商大卒·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동문과 부인 金修自(72년 家政大卒·명진중학교 교감·금샘사랑방문화클럽 회장)동문은 부산지부동맹회에서 도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맹회 일이면 '꼭 부러지개' 해내는 동문 부부다.

동맹회와의 남다른 인연은 6년 전 부인 金修自동문이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면서부터. 매일 등산도입인 관아산우회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黃漢植동문도 참가하게 됐고, 1박2일로 진행되는 '시와 동문이 있는 우정공동체 문화의 밤' 행사를 제언해 부인과 함께 애송시와 자작시를 모아 문집을 발간하는 등 지난해 11월 벌써 세 번째 문화의 밤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현재 부산지부동맹회 조직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金修自동문은 매일 주제가 있는 정기포럼인 마르니에 클럽을 장려하고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음메이지어 자유로로 강좌 코너를 개설해 매일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친목교류에도 적극적이라고. 이에 질세라 기획위원장과 관악산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黃漢植동문은 부인과 함께 동문 가족 반란의 날과 송년의 밤 행사, 회장단 워크숍 등을 기획하며 '철벽군함'을 과시 하고 있다.

"부부 동문이라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데 마음이 잘 맞아요. 물론 동맹회를 위한 일



좌로부터 黃民中군, 金修自동문, 한 댄 건너 黃漢植·黃世林동문, 원래 黃殷植동문

黃漢植동문의 서울대 가족

부인

金修自(72년 家政大卒)

남동생

黃殷植(77년 工大卒)

차녀

黃世林(00년 人文大卒)

장남

黃民中(01년 社會大入)

을 하다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지만 많은 동문들을 자주 만나면서 정을 나누게 되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지면 걱정할 필요도 없군요."

黃漢植동문이 한국지역사회회학,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분권부산동문부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지역과 노동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편, 金修自동문은 금샘사랑문화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다운 이웃, 삼맛 나는 금샘마을'을 기치로 문화의 밤, 단오잔치,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있고 이웃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아왔다.

"그동안 실패를 중심으로 뭔가 작으니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항상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부산대 평생교육원에 NGO 지도자과정과 지역혁신아카데미를 개설해 아내는 각각 1기 수료생으로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또 동문자모서의 파견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한편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중견기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남동생 黃殷植(77년 工大卒·재우기술 사장)동문은 전기기기 회사, 설계, 컨설팅 전문회사를 운영하며 지난해 4월 모교 기초전력연구원과 기술 및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모교 지원과 인재육성사업에 남다른 여정을

쏟고 있다고. 만능기능인으로선 전기기사·정보관리기사·안전기사·소방설비기사·품질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KT마크인징과 학기기술부 장관 표창, IR52 경영대상, 펄스프론티어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학시절 모교 향토개척단에서 농촌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가 지금의 부인을 만난 黃漢植동문은 매사에 사려가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에 끌려 결혼하게 됐다고 말한다.

"학창시절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사사건건 부딪히고 헤프년도 많았죠. ROTC 시절 아내의 기(?)를 한번 쭉어보려고 숨을 주거나 만가나 했는데 나만 취하고 아내는 택시를 타고 사퇴된 사람, 졸업 부럽 종강(?)에 각자 다른 파브너와 참석해 대청한 척 하며 서로 악을 올리기도 하는 등 나열하지만 끝도 없죠. 그래도 그대나 자급이나 변함 없이 뭔가 일을 만들고 벌리는 건 서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黃동문 내외와는 남의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끼'가 있는 차녀 黃世林(00년 人文大卒)동문, 카루사로 군복무중인 장남 黃民中(01년 社會大入)군과 영화음악의 공부를 하고 있는 장녀 黃藝林씨는 사회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남을 먼저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는 黃동문 내외를 쫓 배웠다. 예술평론가의 꿈을 안고 미학과에 입학한 黃世林동문은 모교 벤치기업에서 계입(?) '히데스의 지자'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모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예매이션 기획자가 되기 위해 모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黃民中군은 군 대체후 대학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중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매주 가족 회의를 열자고 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자주 모인 시간은 없지만 1년에 두 번은 '나의 삶·나의 일·나의 꿈'을 돌아보고 내다보고'라는 주제로 1박2일의 소중한 가족 MT를 떠납니다. 우리 가족의 소망이라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홀로 신 사람들도 문화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창조적 소수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表)

특기자·지역균형선발제 성공

수시전형 입학생 수준 뛰어나

2005학년도 수시전형에 합격한 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는 지난 1월 10일 수시전형 합격자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수준이달자 비율이 감소했고, 올해 첫 실시한 지역균형선발 합격생 가운데 영어성적 미달자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수시모집 합격생 9백78

명을 상대로 실시한 영어·수학 특별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영어 22%, 수학 22.7% 등으로 작년 영어 24%, 수학 24.5%보다 2% 가량 감소했다.

합격자 중 '고균형' 수강대 상인 TEPS 7점 이상인 자는 지역균형선발로 뽑힌 학생이 29%(5백86명 중 1백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기자전형 학생이 28%(3백92명 중 1백9명, 지난해는 9백89명 중 2백54명으로 26%)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균형선발이 자칫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합격시킬 것이란 우려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기초영어' 수강대상인 TEPS 5백점 이하의 지역균형 17%(98명), 특기자 30%(1백17명)로 전체 평균 22%(2백46명)를 나타내 전년도와 24%(2백44명)보다 줄었다.

모교 기초교육원 康政培원장은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최상의 실력을 보였고 지역균형선발제도 성취에서 뒤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제도 모두 성공을 거뒀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美國대학 박사학위 최다배출

한국, 국가 순위서 2위 차지

모교가 미국 대학을 제외하고 미국 박사학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해외대학으로 조사됐다.

미국 고등교육 전문 주간지인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은 지난 1월 7일자 지면에서 시카고대학 미 연방정부의 후원으로 1990~2003

년 5년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를 출신 학부별로 분석한 결과, 모교가 1천6백55명으로 해외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대학들을 포함시킨 전체 순위에서도 2천1백75명의 박사를 배출한 버클리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해외대학 중 2, 3위를 차지한 대만국립대(1천1백

90명)와 베이징대(1천1백53명)보다 많은 규모다.

모교 외에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대(7백20명), 고려대(4백45명)가 각각 5, 8위에 머물렀다.

이들 대학 외에 10위권에는 중국과 4개 대학, 대만·태국·타이 각 1개 대학이 포함됐다.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3천1백43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대만(1천4백36명)과 인도(1천1백77명)가 1점정 이상의 미국 박사를 배출, 아시아 국가들이 초강세를 보였다.

%로 증가했다. 2004년 8월 인용된 3명의 교수 중 2명, 올 2월 인용 예정자 6명 중 절반인 3명이 국내 박사출신자들이다.

광대는 지난해 8월 신입교수 6명 중 2명, 지난 1월에도 8명 중 3명을 '토목박사'로 채용했다.

현재 전체 교수 2백94명 가운데 12.9%(38명)가 국내 박사인 공대는 지난 3년간 임용한 44명의 교수 중 국내대학 취득자가 25%인 11명이나 됐다. 국내 박사 비율이 11%인 자연대도 최근 2년간 채용된 41명의 교수 중 25%(10명)가 국내 박사이며, 지난 1월 20일 대학본부의 최종 승인이 임용자 6명 가운데 1명도 국내 박사다.

敎 敎文子교수 유족, 발전기금 2억원 전달

모교는 지난 1월 6일 모교 총장실에서 鄭義興총장과 故 敎文子(67년 看護大學)前간호대학장의 남편 姜義雄(68년 醫大卒·서울정영외과 원장·사친 右)등문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 및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27일 별세한 敎文子학장의 뜻에 따라 이날 회직금 2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왔다.



모교 병원

후원회 창립...姜信浩회장 선출



모교 병원(원장 成政男)은 지난 1월 14일 병원 내 임상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에 발족하는 발전후원회는 분단 병원과 어린이병원 등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후원회를 확대, 공식 기구화한 것으로 앞으로 후원금 모금을 통해 교육·연구·진료 사업과 불우환자 지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를 통해 초대 후원회장에 동야대학 姜信浩(52년 醫大卒·분회 부회장)회장, CJ그룹 孫京植(61년 法大卒·분회 부회장)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朴三求(61년 法大卒·분회 부회장)회장, 한미약품 姜信浩(56년 師大卒·분회 부회장)회장, 중앙일보 李敬淳(56년 文壇大卒)상임고문, SBS 朴興泰(61년 法大卒·분회 부회장)회장, CJ그룹 孫京植(61년 法大卒·분회 부회장)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朴三求(61년 法大卒·분회 부회장)회장 등 장이다.

경영대학

'기업관리학' MBA 운영키로

경영대학은 지난 1월 13일 2005학년도 경영학 석사과정에 '기업관리학(가칭)'을 신설하고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라 우선 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2년간 모두 60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시키는 외국인 지원자를 고려해 해외교과과정 채택 가능하기로 정했으며, 대상은 실무경력 3년 이상에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했다.

교육과정은 회사업무와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수업에만 충실도록

하기 위해 주간 과정으로 강의시간을 선형제로 운영키로 했다. 때문에 입학할 원하는 지원자는 회사 생활과 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며 1년차 과정은 수강생 전원이 같은 과목을 같은 학기에 듣는 이수조준화(lock-step)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과정에 한국기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강좌나 한국 경영이론 관련 강좌 등 한국 MBA 과정만의 독특한 교과과정을 개발해 외국인 지원자에 대한 유인책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박사 교수채용 비율 증가

농생대 50%·공대 38%로 급증

모교 鄭義興총장은 지난 1월 14일 "총장 임기 내에 신규 임용 교수와 절반 정도는 국내 박사 중에서 채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총장은 "국내 박사를 전후 교수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대학 입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무조건 외국박사 선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내 박사 채용 절차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교수 신규임용 결과 미국박사 임용이던 모교가 이공계 대학 교수진에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최근 대학본부로부터 신규 교수임용 승인을 받은 박사 학위자 중 국내 박사의 비율이 농생대 50%, 공대 38%로 급증했다. 농생대: 2004년 2월 현재 전체 1백2명의 교수 중 국내 박사가 3명뿐이었으나, 1년새 5명이 늘어나 국내 박사 비율이 2.9%에서 6.3

모교 소식

이공계 출신 文重亮(85년 自然大)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지난 2월 1일 모교 계산통계학과 출신인 文重亮(85년 自然大)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사민)가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로 임용돼 3월부터 '교양 한국사'와 '한국사 특강' 등을 강의하게 됐다.

87년 모교 대학원 신사학의 취



득 후 96년 과학사 및 화학환경합동과에서 '조선후기의 수리 학'으로 이 학박사학위를 받은 文교수는 최근까지 조선 후기 서양 천문도의 장래와 천문도의 인의 동양적인 전통연구에 힘을 쏟았으며, 조선후기 과학과 사상을 비롯해 실험자들의 과학담론과 네트워크를 연구했다.

'대학원 특별 수강생' 5백30여 명 모집

모교는 지난 1월 6일 오는 1학기부터 일반인이나 타 대학 학생들도 모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특별 수강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교 측은 이러한 '특별 수강생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월 3일부터 21일까지 대학원 모집정원의 10% 이내 석사 과정 3백70명, 박사 과정 1백6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다.

인사

정보화본부장에
朴恩雨교수

지난 1월 1일 모교 정보화본부장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朴恩雨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차분부장은 1977년 농과대학 농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해 한국식물병리학의 총무간사, 경기도 농촌진흥원 겸임 농업연구관, 교육부 농업과학심사평가위원의 간사,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위원, 모교 농업과학공동기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간호대 학장에
朴誠愛교수

지난 1월 10일 간호대학 학장에 간호학과 朴誠愛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차학장은 1970년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1978년 모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해 모교 평의원, 간호대 부학장 겸 간호학과장, 서울시 간호사회 기획위원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치과대 학장에
鄭弼蕭교수

지난해 12월 28일 치과대학 학장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鄭弼蕭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鄭학장은 1979년 치과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후 1989년 모교에 부임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재무이사,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기획이사, 공직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영국 런던 킹즈대학 구강생물학과 교학교수 등을 역임했다.

경영대 학장에
安相炯교수

지난 1월 31일 경영대학 학장에 경영학과 安相炯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안학장은 1973년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를 졸업, 1985년 미국 카네기 멜론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에 부임, 모교 중앙교육진흥원 정보부장, 경영정보연구소장, 경영대학 교무담당 부학장, 경영학과 학과장, 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 교원교수, 한국경영과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지냈다.

(李)

‘서울대 법대 백년사’를 읽고

尹亨燮(연세대 명예교수)

역사서술이란 그 대상이 국가이든 대학이든 집필자의 객관적인 역사관과 그의 史實으로서의 사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과장되고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왜곡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의명분에 입각한 春秋筆法과 엄정한 正論直筆을 요구받게 된다.

우리 나라 근대화의 여정에 큰 대적 재관재도의 艱辛이 되는 재관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1895년에 설립한 법관양성소가 그 후 어떻게 승계되어 그 법풍이 오늘의 서울대 법대에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비정문가에게는 매우 생소하였으나 도리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 법풍승계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이미 우리의 근대 법학교육 맥락 이어져 왔으나 마지막까지 이 책을 붙들고 고민했던 金福錫상임법선위원이 이전에 관한 남모를 고뇌를 실트한 것도 심은 법풍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고비마다 있었던 정치적 격랑 속에서 학교측에 기해졌던 ‘강국의 초차’와 학교측이 취했던 대응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술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한다(권찬후기 참조). 그런 점에서 이 책의 간행을 학교가 아닌 동창회가 맡게 된 것은 다행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법관양성소(1895~1908), 법학교(1909~1911), 경성전수학교(1912~1921), 경성법학전문학교(1922~1945), 경성제대 법문학부(1928~1945), 서울대 법대(1946~현재)로 이어지는 근대법학교육 1백년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국가가 그들의 설립 및 운영체제였고 그 역사과정 속에 국가의 변란과 주권의 침탈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나 마 예리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역사란 언제나 영광과 치욕이 한 대 여

저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명암과 호비가 잇갈리게 되어 있다. 진정한 역사는 정직한 역사이며 이는 영웅을 선별해서 기술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성법전과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서울대 법대 백년사’에 포함시켜 엮는 것은 도리어 성실한 역사가술로서 누구에게나 높은 설득력을 갖는다. 슬한 반고와 풍랑 속에서도 근대 법학교육의 맥락은 1백년간 그렇게 해서 단절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1984년 5월 24일 서울대 법대동 협회 정기총회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년사’를 발간하기로 의결한 이래 만 20년의 세월을 겪고서야 비로소 이 책이 완성된 것도, 그리고 출판 1백년에서 다시 10년이 경과한 이제야 출간된 것만 보아도 이 역사서의 발간작업이 얼마나 난공사였는지 알만하다. 그런 점에서 玄鶴鍾權선위원장(우리는 1백년사의 장점에 그 역사의 굵이굵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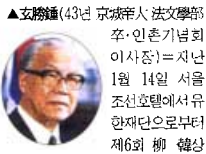
가속하면서 도그마나 편견 없이 가감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담아내기 위해 史實的인 소임을 수 없이 다진한 것입니다”라고 토로한 것은 많은 신자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대학에 몸을 두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같은

난공사를 스산과 집념을 갖고 성사시킨 玄鶴鍾權선위원장, 李相赫 前동창회장, 金福錫상임법선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함께 찬하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우리 나라 법학전문교육제도의 개혁이 특정한 이대 肅政院의 교호를 넘은 이 책의 출간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다만 한가지, 지난 1백년동안 우리 나라의 법학교육과 법 실천의 발전을 위해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연구했으며 그것이 한국정치와 한국사법제도의 변혁 및 그 운영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 나라 모든 후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선도했는지 더욱 극명하게 부각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 경

수 상



▲**安勝雄**(43년 京大人) 法文學部

卒·인촌기념회 이사장)=지난 1월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유 한재단으로부터 제6회 柳 韓堂

을 받음.

▲**韓宇錫**(55년 文理大學·前주불

대사)=지난 1월 14일 서울 프라 자호텔에서 열린 경복궁동창회 신

년대회회에서 제14회 경복궁문대

상을 받음.

▲**金瑗東**(59년 文理大學·모교 사

호회와 명예교 수·학술원 회

원·한국개발연 구원 국제정책대

학원 초빙교수)=

지난 1월 21

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

구 재성고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

년교례회에서 제1회 자랑스런 계

산인상을 받음.

▲**金基炳**(67년 行大院卒·롯데관

광 회장·문화

부회장)=지난

1월 24일 한국

외대 총동문회

에서 수여하는

'2005 자랑스런

외대인상' 수상자에 선정됨.

▲**文信容**(74년 醫大卒·모교 신부

인과학교실 교

수)=지난 1월

13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을 받음.

▲**金大煥**(75년 商大卒·노동부 장

관)=지난 1월

21일 대구 그랜

드호텔에서 열린

대구 계성고 동

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에서 제1회 자랑스런 계성인상을 받

음.

▲**黃禹錫**(77년 鮮體大學·모교 수

의학과 석좌교

수)=지난 1월

11일 서울 코엑

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이

미지커뮤니케이

션연구원(CICI)으로부터 제1회

한국이미지 알라기 다담물상을 받

음. 또 1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

에서 열린 충청항우회 신년교례회

에서 제1회 자랑스런 충청인상을

받음.

▲**張永蘭**(80년 高大學·조원F&I

대표·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

원)=지난해 12

월 21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경

화회를 가진 조

성과 국인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金勝敏**(1971 AMP·하나은행장)

=지난 1월 5일

서울 롯데호텔

에서 열린 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제14회 財山금

웅장대상을 받

음.

▲**尹鎭金**(27기 AMP·웅진그룹 회

장)=지난 1월

20일 서울 프라

자호텔에서 열린

충청항우회 신년

교례회에서 제1

회 자랑스런 충

청인상을 받음.

▲**車元甲**(5기 SGS·사단법인 한국

여성정치연맹

상임이사·민주

평통자문회의 상

임위원)=지난

해 남북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

음.

▲**孔貞澤**(57년 商大卒·서울시 교

육감)=지난 1

월 16일 시도교

육청 간의 교육

정책 조율과 교

육 정보를 교환

하는 전국시도교

육감협의회 회장에 취임함.

▲**韓完信**(60년 文理大學·한성대

총장)=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

사 본사에서 제

24대 총장에 취

임함.

▲**崔永道**(61년 法大卒·참여연대

공동대표·변호

사)=지난해 12

월 22일 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

(직무국)에 임

명됨.

▲**李在順**(62년 醫大卒·모교 기생

충학교실 명예교수)=지난 1월 24

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20대 회장

에 선임됨.

▲**金政起**(63년 法大卒·한국외대

교수·한국성지

커뮤니케이션학

회장)=지난 1

월 7일 한국방

송광공공사회부

터 공익광고협의

회 위원장에 위촉됨.

▲**金建孝**(65년 醫大卒·음산대 교

수)=최근 뇌졸

중 예방 수술 및

비거제병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

하는 대한혈관의

과학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함.

▲**張聖根**(67년 文理大學·순천향

대 교수)=지난 1월 11일 서울 여

의도 63법당에서 열린사이바대학

교 제2대 총장에 선출됨.

▲**文玉倫**(67년 醫大卒·모교 보건

학과 교수)=지

난 1월 6일 모

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에서 한

국에이조치연

맹 제5대 회장

에 취임함.

▲**孫錫準**(68년 文理大學·국민연

금관리공단 이사장)=지난 1월 13

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차관

급)에 위명됨.

▲**李泳南**(68년 莫大學·충북대 교

수)=최근 1년

일기의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

회장에 취임함.

▲**李永錫**(69년 商大卒·前국부조

정실장)=지난

1월 19일 연인

한국증권선물거

래소 창립 주주

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에 선임

됨.

▲**安國正**(70년 文理大學·SBS 대

표이사 부사장·

보보 논설위원)

=지난 1월 28

일 SBS 대표이

사 사장에 선임

됨.

▲**金振鈞**(71년 法大卒·前부총리

겸 지경경제부

장관)=지난 1

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부 장관에 임명

됨.

▲**朴鍾秀**(70년 商大卒·前대우증

권 사장)=지난 1월 21일 LG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孝澤**(71년 工大卒·모교 지구

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지난 1

월 21일 호주에서 열린 제4회 환

경지구호우회 아대 심포지엄

총회에서 아태지역 회장에 선출됨.

▲**金春錫**(73년 文理大學·국무보

정실 심사평가1심의관)=지난 1

월 21일 국무조정실 정책보좌관

에 임명됨.

▲**張宗煥**(73년 文理大學·미국 브

리스를 코어어

스 스페리 연구

책임자)=지난

1월 10일 북식

자 최고기술직인

자(CTO) 겸 부

사장에 선임됨.

▲**白南壽**(73년 醫大卒·원자력원

원 일반외과 과

장)=지난 1월

9일 서울 그랜

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만인상

예망학회 창립총

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梁玆珠**(75년 工大卒·충남대 교

수)=지난 1월 13일 충남대 제15

대 총장에 선출됨.

▲**宋受享**(75년 文理大學·외교통

상부 기획관리실장)=지난 1월 6

일 외교교통상부 차관보에 임명됨.

▲**辛京珉**(75년 文理大學·MBC 보

도국 부국장)

=지난 1월 11일

MBC 보도국장

직무대행에 선임

됨.

▲**金振鈞**(71년 法大卒·前부총리

겸 지경경제부

장관)=지난 1

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부 장관에 임명

됨.

▲**朴鍾秀**(70년 商大卒·前대우증

권 사장)=지난 1월 21일 LG투자

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孝澤**(71년 工大卒·모교 지구

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지난 1

월 21일 호주에서 열린 제4회 환

경지구호우회 아대 심포지엄

총회에서 아태지역 회장에 선출됨.

▲**金春錫**(73년 文理大學·국무보

정실 심사평가1심의관)=지난 1

월 21일 국무조정실 정책보좌관

에 임명됨.

▲**張宗煥**(73년 文理大學·미국 브

리스를 코어어

스 스페리 연구

책임자)=지난

▲李完享(75년) 文壇大卒·청와대 차인비서관)=지난 1월 19일 경기 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됨.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변호사(부회장)=지난 1월 18일 임기 4년의 대한축구협회 제50대 회장에 재선출됨.

▲金星煥(76년) 社會大卒·前우즈베키스탄 대사)=지난 1월 6일 외교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崔 桓(76년) 工大卒·금융공대 교수)=지난 1월 12일 치러진 금융공대 제4대 총장 직결선거에서 당선돼 오는 4월부터 4년 임기의 총장을 맡게 됨.

▲盧俊亨(76년) 法大卒·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지난 1월 20일 정보통신부 차관에 임명됨.

▲徐容賢(76년) 法大卒·주베네수엘라 공사)=지난 1월 18일 주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에 임명됨.

▲趙英奎(79년) 法大卒·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지난 1월 18일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에 임명됨.

▲尹景鎭(80년) 社會大卒·신동아 회자해상부흥 상무)=지난 1월 11일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됨.

▲鄭鍾永(81년) 行大院卒·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지난 1월 10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청조정위원

회 위원장에 임명됨.

▲洪宜衡(82년) 人文大卒·머니투데이 편집국장)=지난 1월 18일 윤·오스카워! 경제신문인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발령인에 취임

한.
▲林用西(82년) 醫大卒·해화학회 이사장·해화병 원 원장)=지난 1월 12일 대전 대 제5대 총장에 선임됨.

▲金晉魯(85년) 法大卒·법무법인 내일종합 대표변호사)=지난 1월 6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됨.

▲朴哲壽(86년) 人文大卒·베인&컴퍼니 코리아 공동대표)=지난 1월 6일 베인&컴퍼니 글로벌 디렉터에 선임됨.

▲金善珠(86년) 法大卒·어민합동 갑골사무소 변호사)=지난 1월 6일 사법제 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실무추진단장 겸 대통령

사업개혁비서관에 임명됨.
▲申東秀(94년) 大學院卒·해군의 무감·대령)=지난 1월 31일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제21대 해군 의무병과장에 취임함.

▲李鍾結(56기) AMP·한국타이어 경영지원본부장)=지난 1월 1일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선임됨.

▲崔聖坤(57기) ACAD·한국교육삼락·홍연합회장)=지난 1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국교육삼락회총 연합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함.

▲蔡南熙(51기) ACAD·前전설교목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지난 1월 21일 한국철도기술연구 제4대 원장에 선임됨.

▲全武培(56년) 文壇大卒·도서출판 새누리 발행인)=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을지로2가 함원교회에서 '조용수와 민족일보'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유사교수부장·前서문산업대 총장·서경대 석좌교수)=지난 1월 17일 육사 신입생 제65기 생도

들을 대상으로 '사자생도와 국가관'이라는 주제로 특강함.

▲俞東濤(60년) 農大卒·한국단기사표협회장·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장·수문지부동맹회장)=지난 1월 20일 과천 농림부 회

의실에서 열린 차림·경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농정 현안과 당면 문제에 대해 논의함.

▲曹章煥(60년) 農大卒·前단국대 총장·단국대 명예교수)=최근 떡류생 산과학(도서출판 한림원)을 출간함.

▲李相周(60년) 師大卒·성신여대 총장·시대동참회장)=지난 1월 20일 성신여대 교내 수정관에서 연진평 1백93평, 3층 규모의 '성신여대 부설 가족건강복지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명예교수·한국광대문화진흥원 이사장)=지난 12월 2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부티홀에서 광

광역 인사들을 초청, 광대산업발전을 위한 승년오찬회를 개최함.
▲姜基遠(64년) 法大卒·변호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지난 1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토파스 룸에서 제47회 여성과 경영 포럼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함.

▲安秉萬(64년) 法大卒·한국외국어대 총장)=지난 1월 3일 한국외국어대 서울 캠퍼스·국제관 예식실에서 신년 하례식 겸 사무

식을 개최함.

▲朴建春(66년) 醫大卒·서울아산병원장)=지난 1월 19일 남아시아 지원사업 재해민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반다야체 주에

17명의 의문지원단을 파견함.
▲鄭貴來(67년) 文理大卒·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지난 1월 19일 충북도청에서 李元龍도지사와 농수산분야 수출사업에 대한 업무 협조약정을 체결함.

▲羅成淑(75년) 美大卒·서울산업대 교수·한국어 성다자언포럼 회장)=지난 1월 27일 캐나다 오틀에서 열린 GBA(Gender-based Analysis) 총회에 '여성

남성의 편견을 통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제의 포스터를 초청받아 전시함.

▲白昌宰(83년) 社會大卒·고교 정치학과 학과장)=지난 1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 복원홀에서 '정치사상의 전통과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仁山 金榮國선생 5주기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함.

▲趙泰玄(83년) 大學院卒·중소기업청 통안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최근 '글로벌 마케팅' (도서출판 두남)을 발간함.

▲南台亨(98년) 人文大卒·명지대 교수)=최근 세계 최초의 영어 비록어집 'Contemporary Go Terms'(바람세개)를 출간함.

▲具鍾泰(45기) AMP·前아시안세아나이세무사 협회장)=지난 1월 20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세리사회연합회 킨지로 모리 회

장, 일본 캔자시로 오타케 국제청장 등과 만담함.

동참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측을 펼칠 등무.

*강인식(02년) 工大卒·김미정 씨=2월 19일 12시 30분.
*이정무(95년) 社會大卒·이은정 씨=2월 26일 15시 30분.
*이종익(00년) 工大卒·이윤정 씨=3월 12일 14시.

영사

학측

동창회별 일고

동문과의 인간관계 이어나가길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어느 학교의 동문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이러한 인간관계의 한 유형이며 나를 규정하는 필연적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인간관계와 구별되는 특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동문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선 동문은 같은 학교에 다닌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학교라는 것이 지니는 기능과 역할 때문에 동문 관계의 특수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란 어떤 종류의 집단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육의 공간이다. 여기서 동문들은 한 때 학생으로서 혹은 피교육자로서 학업에 열중하고 학우들을 사귀었고 경쟁도 했으며 남단을 지냈고 또 후회와 회한의 여러 운 시들을 겪기도 했다.

이 모든 경험들은 교육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참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한고 고귀하며 또한 순수하기까지 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동문이란 바로 이러한 경험을 비슷한 나이에 서로 나눈 사람들이다. 동문들은 이와 같이 서로 과거를 나누었고 그리하여 각자의 자아 속에 깊은 유사점, 예를 들어 서로 비슷한 세계관, 인생관과 가치관 같은 것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것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다면 동문들은 다소 서먹서먹한 '자기 자신'의 모습 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 동안 헤어져 있던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어떻게 우리 동문들은 그 지대한 심정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가.

또한 우리는 동문이 과거를 현재화하는 만큼 현재를 미래화하는 전조적 관계임을 지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동문들을 만날 때 서로의 모습에서 마치 '혼란처럼 허둥대던 지난날의 자기



嚴廷國
(71년 新大院卒)
서강대 대학원장

자신을 혹은 자상이 싹트고 애정을 꽃피우던 그 뜻뜻한 시절의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특징들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교와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신해야 할 것이다. 모교라는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동문들을 단상으로 서로 인연을 맺었으며,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의 흐름이 바로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받는 자기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꾸어 나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미래 고민해 보는 기회

주지하듯이, 2004년 계속된 사회학적 갈등의 중심에는 늘 '평등'이 서 있었다. '평등'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나눠 구분한 그 유명한 G. Sartori의 언급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평등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평등이 같은 (sameness)으로서의 평등을 의미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 축인 '자유'를 부정하는 자가 당착적 결과를 낳고 만다. 사회구성원들을 완벽하게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소소한 이질로부터 '상제'로 일정부분을 취득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간 교육체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라 온갖 매스컴을 장식했던 서울대 폐지론, 국립대 공동화위자논의, 민영화론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때를 때로 오국대학과 언론에 의해 서울대의 자멸과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듯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덕분에,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의 반박들을 여러 매체와 동창회보를 통해 접하면서 과연 사회내 엘리트는 존재하는가 하는 해로운 질문에서부터 이념의 존속을 인정한다면 이들의 사회는 어떠한가 할까라는 규범적 질문까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들간에는 능력과 역할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나뉘어진다. 완벽한 평등을 얻어 언급한 비와 같이 관계를 동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것을 엘리트 사회의 자연스런 형성 과정이라 볼 수 있다면 논의의 중심은 엘리트의 존재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엘리트사회를 어떻게 무도하여 공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



鄭惠恩
(98년 藥大卒)
약사
형시 48회 합격자

게 할 것인가라는 엘리트 사회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대인이 모두 엘리트라 할 수는 없고 서울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엘리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학생 선반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대학 측의 부단한 노력을 감안한다면,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선별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공정한 엘리트 총원과정이라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대'라는 엘리트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사회의 '개방성'이며 엘리트의 자질, 그리고 엘리트들 유도하는 사회 구조일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illegible]

◆인문대 △김병국⁸² △고광호⁷⁹
△권태인⁷⁸ △김동국⁸⁷ △김병석⁸⁸
△김영현⁸⁶ △김용석⁹² △김원배⁸⁴
△김정호⁹⁵ △김호연⁷⁹ △김희갑⁹⁰
△류병래⁸⁵ △류운종⁹⁵ △박남석⁹¹

[illegible]

△김중수△김창순△박방규△박순태△박영덕△박은진△박인식△박인철△박한철△배성진△배성훈△배철호△백은영△백현영△박한재△소민호△손영환△손성철△송규현△신광규△신동규△신양우△신정도△신재식△양재우△오정현△오준희△오준근△오복현△오현상△윤호중△이다우△이봉재△이민식△이수빈△이은빈△이정규△이진호△이춘원△이필곤△임병민△정기선△정사립△정승국△정승국△정지영△정성복△정용용△정재진△최병호△최성태△하 현△하도현

◆생태 △김정자△김미경△김진기△박병희△박소아△박병호△서경호△서병숙△손희준△신의호△유병철△안영환△원병성△유동순△이강아△이대세△이성란△이정민△이정숙△조정자△조영철△최정미△최유이

◆수의 △김상규△김경주△김원신△김종면△김경태△김준신△김진영△김태원△동희조△박용복△박영환△변찬달△소병재△양진권△오병호△유기수△윤재철△이원△이규남△이병상△이성민△이종희△이진영△이민선△전영일△전은진△정의조△최병기△최혜현△한재영△최정희

◆의대 △강병희△고요정△고정환△김 은△김경호△김계목△김광수△김근혁△김병근△김성태△김성오△김숙수△김영환△김영남△김영자△김영호△김진기△나래연△류시중△문범수△박병호△박상욱△박성주△박승두△박영배△박영인

△박준석△박현성△박종재△배영인△백연희△민민호△서성수△서현숙△서해관△송상선△송희성△송규정△심은숙△안민문△안영근△양승국△염영일△윤종현△이계하△이성완△이수인△이숙연△이영연△이재현△이종성△이주기△이해동△임순택△김계수△한민영△조해숙△한재영△홍승영△원병자

◆음대 △강성준△강은우△구재현△김명숙△김성남△김승국△김수희△김신우△민원기△박병삼△박호경△백은숙△유경훈△유진영△송태권△오유진△유이경△유명준△윤의중△이경미△이기규△이명희△이승현△이영숙△이은영△이종길△이종필△이준성△이현환△임은애△조경양△한규희△홍신숙

◆의대 △김조자△고형일△권경림△김관영△김국기△김득구△김병기△김복성△김상우△김성희△김인규△김재운△김한중△나규민△나영호△나정숙△노홍세△박건준△박재식△박주배△배진선△박지영△송호영△송승상△신미자△오서환△오영선△위정복△유 현△유영성△유영환△은갑성△이도희△이동수△이두현△이명우△이명희△이원기△이원석△전예근△김병관△조주영△최재집△최완주△한승수△한중수△홍승인

◆치대 △고성희△김 성△김기현△김성현△김석연△김영호△김목희△김철우△김하선△김화준△류영남△박상윤△박신영△박성세△백희선△서문석△송철규△신경민△신문학△안병관

△여인호△유동환△유세정△유시호△윤철민△이건성△이광진△이규순△이명재△이복성△이성종△이신환△이은영△이유식△이의중△이인환△이중화△이창순△이희철△이현재△이혜자△임갑근△정완식△정원정△정기범△정승영△정영주△정욱근△정철표△조원표△조재악△최종국△한보관△호창진△최재주

◆대학원 △강 옥△강상덕△강영길△고진석△구정환△권덕주△기계환△김민희△김성일△김용주△김희수△박기준△박영환△박유영△박기준△박상진△손승관△송승숙△윤의중△이경미△유정임△유영환△이시우△이정연△이병민△조석현△최성우△한남수

◆경대 △김광환△신종호△유대현△임영희△임정현△한정덕

◆고대 △김영호△이서영△이하원

◆보대 △김상욱△김종성△박일영△서민선△이영환△이재환△조소희△최혜정

◆사대 △김종화△이재환△지현범

◆사대 △김민남△김대원 △권오락△김광영△김병국△김정호△김종민△서일수△김병주△이석인△임동남△진익환△최병기△최석종△허나식△허필국△한덕주△한민환

◆화대 △김계중△김진조△김진태△김재연△김종원△박상락△서동환△이춘재△안영호△정인호△조성희△최주삼△한희동

◆AMP △김민희△구자경△권구상△이병식△권석우△권행서△김경덕△김동규

△김병철△김성규△김성숙△김영기△김영재△김이훈△김정도△김종권△김진영△김재환△김하태△김희오△노정호△리종환△문기권△민경관△박세환△박희순△서준보△손성일△신경래△산현식△안원일△양민희△어윤태△유대영△유양수△유환배△유한삼△유재영△윤성민△윤재민△이선일△이내용△이변우△이성현△이승규△이영직△이재환△이준식△이종우△이현국△이현성△임성진△김민진△장병준△정승우△정희수△정보연△정상환△정형택△정위중△최창환△차석영△최광진△최병민△최기문△한봉기△한영△홍준권△홍병태△홍성복△홍준식△홍지호

◆AIP △김경호△김규현△김종현△김성환△김성덕△김성철△김영수△김정민△김종성△김학규△노관기△유승준△박병수△박영식△박형주△서병오△손성기△신재식△삼종택△오 현△윤박준△윤정민△이규철△이두영△이문기△이승철△이영우△이종우△이종진△임지호△조종우△정봉상△조석규△차진환△최길순△최성남△최원태△최정규△황남석△황서우

◆ACAD △공운환△권진수△김덕환△김동일△김부근△김근기△김정환△김창일△박 현△박성희△박인규△박용민△박근우△박병철△박기중△서진규△손호인△송철환△신정수△이교환△이도식△이경수△이영환△이정우△이종희△이철성△이치윤△안재환△정종모△조진영△정진호△조보조

△조용인△최재성

◆ABP △강태호△조동환△김현운△도대재△문형규△박병우△박성기△서승원△송승영△송윤진△신희배△이성택△이성호△이승철△이영호△이재규△전정택

◆SGS △강택성△고수근△노의현△박종득△윤익경△이정수

◆CHCN △김성영△CPCN △최남

◆AMP △김정철△강기주△최종민

◆AIC △김동규△김병규△김영재△김익동△김형태△남훈기△류상태△박정훈△박 훈△박병철△서진호△오윤환△이계성△이기수△이성민△이재영△이정수△임상규△임용복△정현영△조창희△재광기△최근수△최정길△허현욱

◆AFB △도상현△유재우

◆AMFR △김두현△김정목△고승태△권 순△김현형△김미현△김정우△김종국△김진승△남정현△박정희△서정용△신도보△한정진△안춘지△이경숙△이성희△이윤자△이광관△이호영△정관희△정복섭△조기조

분 담 금

◆스위스주 4855
(지면 관계로 APC, HPM 회비 납부하는 분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월 계 : 80,197,800원
결정회비 : 45,800,000원
임 회 : 70,000원
총 계 : 1,281,007,392원
+3,965\$